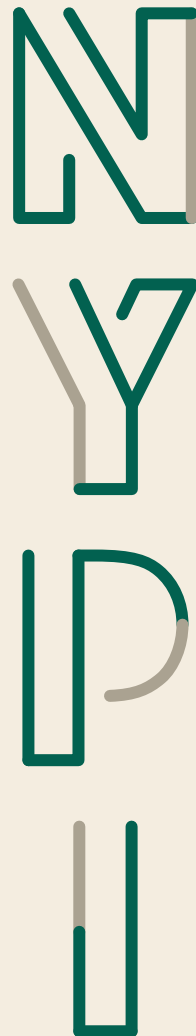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김성은 황영식



연구보고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주요한 영향변인인 양육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양육태도 인식’에의 영향변인을 탐색하고 시사점 및 정책함의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조사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하는 동시에 자료의 구조와 양육태도 변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활용 및 제안하고자 하였다.

2019년 조사 자료는 보호자와 원패널 청소년, 형제·자매 1인 이상 등 3명 이상의 응답자가 한 가구로 묶이는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응답자는 패널 청소년이거나 그의 형제·자매이다. 이때, 청소년 응답자를 개별 연구사례로 두고 분석하면 연구변인에 대하여 가구 내 형제·자매 간 높은 상관을 가져 불안정한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다.

한편, 연구변인인 ‘양육태도 인식’은 가정 즉, 부모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동시에 한 가구 내에서도 개별 청소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특성이다. 즉, 가구 내 분산이 존재하는 동시에 가구 간 분산이 공존하는 변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선절편 위계선형모형(random-intercept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적용하여 자료와 변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모형은 가구라는 상위 집단 속에 개별 청소년이 속한 구조를 가정하고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계수를 추정하는 모형이다.

분석자료는 KCYPS 2018 중1 코호트 2차년도의 청소년 1,745명, 845가구(보호자) 자료이며, 영향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으로부터 가구수준 분산 비율과 유의성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부모 및 가구 관련 특성을 투입하며 설명된 분산의 양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양육태도 인식에 부계변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개인특성(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양육방식을 달리하였고 투입한 모계변인 가운데서는 유의한 변인이 없었다. 또한 아침식사 제공과 부모와의 주말대화가 양육태도 인식에 가장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만족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양육태도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하였고, 출생순서(막내일수록 긍정적)와 자녀 연령(낮을수록 부정적)도 양육태도 인식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사례 비교, 문헌연구 등을 통하여 정책 및 가정의 실천사항에 대하여 제언하였는데, 먼저 아버지교육 내실화 및 참여율 제고와 관련하여 내용 체계를 보강한 다회기 프로그램의 확대, 양육주체로서의 참여를 독려하는 교육 방법의 도입(자조모임 등), 수요자의 참여 편의를 고려한 강좌 개설 등을 제안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육아지원 정책에 대하여서는 고용보험으로 한정된 재원을 별도로 금 또는 일반조세 등으로 재원의 변화 또는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는 상호작용과 지지 기능의 강화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식사와 대화 등 함께하는 활동과 시간을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자료와 연구변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모형을 적용하여 가구 간 차이로 인한 분산 비율을 추정하였고, 형제·자매의 응답 결과라는 대규모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형제·자매의 순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양육태도 인식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을 연구 결과로 확인, 관련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한 점 등이다.

주제어: 양육태도, 형제자매 효과, 위계선형모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주요변인인 양육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양육태도의 영향변인을 탐색하고 시사점 및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제2차년도 조사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하는 동시에 변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활용 및 제안하고자 하였음
 - 조사 자료는 보호자와 패널 청소년, 형제·자매 등 3명 이상의 응답자가 한 가구로 묶이는 data구조를 가지고 있음
 - 양육태도는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시에 가정 내 개별 청소년의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가구 내 및 가구 간 분산 공존)
 - 무선절편 위계선형모형(random-intercept Hierarchical Linear Model)의 적용으로 자료 및 변인 특성에 부합하는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분석자료) KCYPS 2018 중1 코호트 2차년도(1,745명, 845가구)
- (분석방법) 무선 절편 위계선형모형 적용 및 ICC(intraclass correlation)
- (분석구조) 영향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기초모형(모형0)으로부터 가구수준 분산 비율과 유의성을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부모 및 가구 관련 특성을 투입하며 설명된 분산의 양적 변화를 확인함
- (연구모형) 4개의 경쟁모형 중 최종연구모형의 선택은 모형 적합도(model fit)와 편차통계량(deviance statistics)의 χ^2 검증을 활용함

모형	투입 변인	
	개인수준	가구수준
모형0	x	x
모형1	o	x
모형2	o	부 배경(월소득, 부취업, 부학력, 부나이)
모형3	o	모 배경(월소득, 모취업, 모학력, 모나이)
모형4	o	부모 배경, 부모특성(행복감), 가구특성(자녀수)

3. 연구결과

○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산출하였음

주요 결과

1. 양육태도 인식에 부계변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며, 아버지는 자신의 특성(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양육방식을 달리하였음
2. 아침식사 제공과 부모와의 주말대화가 양육태도 인식에 가장 주요한 변인임
3.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양육태도 인식이 긍정적이었음
4. 출생순서(막내일수록 긍정적)와 자녀 연령(낮을수록 부정적)도 양육태도 인식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 ICC추정 결과, 양육태도 인식은 청소년 개인 간 차이가 가구 간 차이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가구에 따른 차이도 20.5%~34.7% 정도 차지하였음

4. 논의 및 시사점

○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사례 비교, 문헌연구 등을 통하여 정책 및 가정 실천사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제언함

- (국가) 아버지교육 내실화와 참여율 제고, 지원 정책의 재정재원 변화
- (가정) 상호작용과 가정의 지지 기능 강화

	주요결과	제언
국가	- 양육태도 인식에 부계변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 - 아버지는 자신의 특성(연령, 학력, 직업 유무)에 따라 양육방식을 달리하는데, 변화하는 사회 속 새로운 아버지상 부재가 원인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특히 남성 육아 및 자녀와 소통/교류하는 시간과 기회 부족함	- [교육] 아버지교육 내실화/참여율 제고 - 체계를 갖춘 다회기성 프로그램 확대 - 양육주체로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방법 도입(강의식과 자조모임 혼합) - 수요자 편의(시간, 장소)를 고려한 강좌 개설 - [정책] 지원 정책의 재원 변화/다양화 - 고용보험으로 재원이 한정되어 재정 부족/부담과 수혜자가 한정 문제 발생 - 별도기금 또는 일반조세 고려 가능
가정	- 아침식사 제공과 부모와의 주말대화가 양육태도 인식에 가장 주요한 변인임 - 자녀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양육태도 인식이 긍정적이었음 - 출생순서와 자녀 연령도 양육태도 인식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 [부모] 상호작용과 지지 기능 강화 - 건강가족의 특징으로 함께 하는 시간과, 지지적 관계, 소통, 정신건강, 위기 대처능력 등이 공통요소로 추출됨 - 식사와 대화 등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며 상호 지지 관계 구축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시사점 및 의의를 가짐

연구 의의
- 가구 내 공통적 특수성과 가구 간 차별적 특수성을 고려한 모형을 적용하여, 가구 간 차이로 인한 분산 비율을 추정 - 패널 청소년 응답과 그 형제·자매의 응답을 동시에 활용하여 대규모 실증 자료를 통한 형제·자매 순서효과를 검증함 - 양육태도 인식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을 연구 결과로 확인, 아버지 양육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 - 가족 간 교류/상호작용의 필요성 확인 및 제언으로서의 실천 사항 제시

202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연구보고 20-R12-1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 1. 양육태도 개념 정의와 관련 변인 9
- 2. 형제/자매 관계가 청소년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 14
- 3. 부모의 양육태도 인식과 형제자매 유형과의 관련성 19

III. 연구방법

- 1. 분석 자료 25
- 2. 측정 변인 25
- 3. 분석 방법 33

IV. 연구결과

- 1. 따스함 41
- 2. 거부 45
- 3. 자율지지 49
- 4. 강요 53

5. 구조제공	57
6. 비밀관성	61

V. 논의

1. 결과 요약	67
2. 제언	71
3. 결론	91

참고문헌	95
-------------------	-----------

표 목차

표 Ⅲ-1. 부모 양육태도 조사 문항	26
표 Ⅲ-2.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별 기술통계와 신뢰도	27
표 Ⅲ-3. 개인수준변인 설명 및 변수 값	29
표 Ⅲ-4. 개인수준변인 기술통계	30
표 Ⅲ-5. 가구수준변인 설명 및 변수 값	31
표 Ⅲ-6. 가구수준변인 기술통계	32
표 Ⅲ-7. 개인수준변인 자료변환방법 및 센터링 여부	35
표 Ⅲ-8. 가구수준변인 자료변환방법 및 센터링 여부	36
표 Ⅲ-9. 투입 변인에 따른 단계별 모형	37
표 Ⅳ-1. 따스함 기초모형 분석결과	41
표 Ⅳ-2. 따스함 모형별 분석결과	43
표 Ⅳ-3. 거부 기초모형 분석결과	45
표 Ⅳ-4. 거부 모형별 분석결과	47
표 Ⅳ-5. 자율지지 기초모형 분석결과	49
표 Ⅳ-6. 자율지지 모형별 분석결과	51
표 Ⅳ-7. 강요 기초모형 분석결과	53
표 Ⅳ-8. 강요 모형별 분석결과	55
표 Ⅳ-9. 구조제공 기초모형 분석결과	57
표 Ⅳ-10. 구조제공 모형별 분석결과	59
표 Ⅳ-11. 비일관성 기초모형 분석결과	61
표 Ⅳ-12. 비일관성 모형별 분석결과	63
표 Ⅴ-1. 양육태도 영향 변인 분석 결과요약	68
표 Ⅴ-2. 연구 주요결과	70
표 Ⅴ-3. 아버지를 위한 주요 정책	72
표 Ⅴ-4. 주요국의 부모휴가제도(2011)	74
표 Ⅴ-5. 아버지 할당제 운용 방식: 기간 할당제와 인센티브 방식을 중심으로	75
표 Ⅴ-6. 주요국의 법정 부성휴가제도(2011)	76

표 V-7. 영국 부성연구소(Fatherhood Institute) 프로그램	78
표 V-8. 독일 아버지센터(Väterzentrum Berlin) 프로그램	79
표 V-9. 스웨덴의 육아휴직 할당기간 및 양성평등보너스 개정 전후 비교 ..	80
표 V-10. 덴마크 아바놀이방(Fars Leagestue)의 세부 프로그램	81
표 V-11. 건강가족 요인 및 특성	88
표 V-12. 연구 주요결과와 제언	92
표 V-13. 연구 의의	94

그림 목차

그림 V-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의 어려움	73
그림 V-2. 국외 정책 사례 특징 및 시사점	82
그림 V-3.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0 아빠교실 운영 체계	84
그림 V-4. 1일 가족과의 대화 시간	89
그림 V-5. 가족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	89
그림 V-6. 주중 부모님과 대화 시간	90

○———— 제1장 서 론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정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아동·청소년의 지적, 정의적 특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곳이다(김소현, 김아영, 2012). 그러한 영향력은 가정의 조건과 상황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지만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와 같은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크다. 부모는 초기 아동의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지적성장, 사회화, 가치관 확립 등 모든 분야의 성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과 가치관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영유아기를 지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접어들수록 인간의 선장과 발달은 가정 외에 교육기관 등에서도 나누어 담당하게 되고,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부모의 가치관과 행동, 양육방식 및 태도 등은 개인의 내·외적 성장에 강력하며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장·발달 간의 관계를 다룬 여러 연구들은 자녀의 심리·정서적 차원, 학업 및 학교생활 관련 요소, 신체적 발달과 건강,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문제행동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들로 자녀의 학업성취, 자존감, 자아개념의 성장에 관한 연구(Baumrind, 1971; Carlson, Uppal & Prosser, 2000; Furnham & Cheng, 2000; Smith, 2011),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허정철, 2010), 자녀의

1) 제 1 장은 김성은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성격 형성에 주는 영향(Rakel, 2002; 모인선, 김희연, 2005), 자녀가 자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끼치는 영향(권미경, 김혜원, 안혜영, 이주원, 2005) 등을 탐색한 연구가 있으며,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에서의 부정적인 면의 감소와 긍정적인 면의 증대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 자기존중감, 사회성과 같은 심리·정서적 영역, 행동특성, 성역할 등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가 연구되어왔고, 그 영향력이 검증되었다(김현옥, 권동택, 2009). 그런데 부모의 양육태도(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포함)는 자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자녀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 및 자녀의 양육태도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박정연, 2009), 형제자매 유무, 형제자매의 성별, 형제자매 내에서의 출생 순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류효정, 2015; 이미현, 2016). 이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긴밀한 영향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부모는 자신의 신념과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녀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등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의 태도를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선택을 한다. 이때 자녀가 여럿인 가정의 경우, 자녀 간 독립적인 방침을 두어 대할 수도 있지만 한 자녀와의 경험을 통하여 다른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를 수정할 수도 있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첫째 자녀에게 잘 적용되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었다면, 둘째 자녀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첫째 자녀와 갈등을 경험했다면 부모 스스로 양육방식을 바꾸려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옥환, 2018). 또한 형제자매 출생순서, 성별 등 관련 변인에 따라 부모애착뿐 아니라 또래애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도 한다(이재연, 2004).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성장에 중대한 영향 요인이며 이는 부모로부터 자녀

에게로 미치는 일방향적 요인이 아닌,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자녀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교화되거나 수정되는 가변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영향을 고려한 양육태도의 효과 및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였고, 부모 양육태도 연구에서 형제자매 유무나 출생순서, 자녀 수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왔다.

그러나 대부분 형제자매 변수를 고려함에 있어서 가구 내 한 조사 대상자에게만 형제자매가 있는지, 형제자매 가운데 몇 번째 순서인지를 질문한 데이터를 기초로 영향관계를 확인해왔다. 즉, 형제자매 모두를 조사대상자로 하여 진행된 조사는 드문 실정이었다. 이 경우 각 자녀의 성별, 출생 순서, 연령 등은 분석 모형에 투입할 수 있는 변수지만, 가구 내 다른 형제자매의 응답을 통하여 그 결과를 검증할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자녀의 양육태도 인식이 둘째 자녀와 다르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같은 가구 내의 첫째 뿐 아니라 둘째 자녀의 양육태도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비교해야하지만, 가구 내 1인 청소년에게만 질문할 경우 그러한 검증은 어렵다.

특히, 양육태도, 양육방식은 가구마다 서로 매우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양육태도 인식에는 청소년 개인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산도 있을 것이나 가구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분산도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집단 수준에서 발생하는 분산이 큰 경우 집단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차원의 분석만으로는 정확한 영향관계를 알기 어렵다. 서로 다른 청소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양육태도 인식의 차이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가 혼합되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두 코호트 각각 1,000명에 대하여 형제자매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데이터는 원패널의 형제자매도 원패널 청소년과 동일한 설문에 응답하여 형제자매 간 영향관계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었으며, 기존에 실시해오던

보호자 조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원패널 청소년과 보호자, 형제자매 1인에 대한 상호 영향관계를 대규모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출생순서, 자녀 수 등 형제자매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부모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조사의 형제자매 부가조사에 응한 원패널과 형제자매, 보호자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각 가정 간 차이(집단수준 분산)를 반영한 분석으로 결과를 산출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 양육태도를 보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만드는 부모 특성, 형제자매 관련 변인, 청소년 개인 특성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방법의 적용을 제안하는 것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주요 영향변인인 양육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정책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양육태도 개념 정의와 관련 변인
- 2. 형제/자매 관계가 청소년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
- 3. 부모의 양육태도 인식과 형제자매 유형과의 관련성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양육태도 및 성격은 형제자매와 함께 가족 내 양육환경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하거나 자율성을 부여하고, 때로는 다양한 문제해결 상황에서 조연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혹은 엄격한 태도로 자녀의 성장을 지도하거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부모의 양육 속에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 형제자매의 경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거나 발달 과정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변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형제자매 관계가 청소년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양육태도와 형제자매 유형과의 관련성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기존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육태도 개념 정의와 관련 변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 설정의 첫 단계로서 자녀의 발달에 일차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은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사회체계이며, 기본적 행동양식을 체득해 나가는 성장환경을 제공한다. 부모는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자로서 자녀에게 최초의 영향을 끼치게 되며

2) 제II 장은 황영식 공동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인식은 향후 아동의 성장에도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들은 그 정의를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초기 연구들 가운데 Becker(1964)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로 정의하였고, 이는 자녀의 지적, 정서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한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바라보거나(Fishbein & Aizen, 1975), 자녀를 향한 행동 및 기대(Parker, Tupling & Brown, 1979; Yoo, 1989)로서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후 다양한 연구들은 자녀 양육을 위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을 강조(유안진, 1982; 김영희, 신희정, 채영문 2007; 허정철, 2010; 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하거나, 자녀에 의하여 지각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양식(조결자, 이명희, 2010)으로 양육태도를 정의하기도 한다. 이는 초기의 부모 양육태도를 바라보던 관점이 부모 중심의 태도를 반영한 반면, 이후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및 자녀가 받아들이는 방식에 주안점을 둔 접근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가족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의 구성 및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면서 가족 구성원간에 대화, 행동 등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Lanz, Scabini, Vermulst & Gerris, 2001; Taniguchi & Ura, 2001).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기존 연구들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인은 자녀의 심리적, 인지적 성장을 반영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부모의 다양한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 자존감, 자아개념의 성장에 관한 연구(Baumrind, 1971; Carlson et al., 2000; Furnham & Cheng, 2000; Smith, 2011), 의사소통이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허정철, 2010), 자녀의 성격 형성(Rakel, 2002; 모인선, 김희연, 2005), 자녀가 자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문제행동에 끼치는 영향(권미경 외, 2005), 역할기대 및 사회적 지원(신숙재, 1997), 경제적 지원 관련(김신정, 김영희, 2007) 등이 진행되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범주화하여 각각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뒤따르게 되는 자녀의 발달 과정의 특성을 살펴보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Kotchick & Forehand, 2002). 이들 연구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줄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장을 도울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심리적 변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조결자와 이명희(2010)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및 자아효능감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육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아 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스트레스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부모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고(정은선, 조한익, 2009) 소명의식(정은선, 하정희, 김정수, 2015) 및 대인관계능력 및 다문화수용성(권재환, 이선희, 2015)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가 밀착되어 있을수록 자녀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민주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이타심, 사회성, 협동심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김학령, 김정화, 정익중, 2001; 이민영, 김광웅, 2001).

이러한 긍정적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들은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정주영(2014)은 부모-자녀의 부정적 상호 작용이 우울,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부모로부터 받은 억압, 스트레스, 폭력 등 부정적 상호작용은 청소년의 우울, 분노, 공격성

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정적인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고립을 강화하고(Choi, Choi & Kim, 2020), 성급함 및 불안감 및 자살 시도 등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Bandelow et al., 2004). 문영숙(2011)은 부모의 부부갈등 및 지배적 양육태도가 아동학대 및 정서적 부적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했고, 이는 또한 우울증 등 다양한 심리적 장애로 이어진다(Alonso et al., 2004).

송지현과 정소희(2014)는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민주적이고 수용적으로 대하는지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여건 이상으로 청소년의 자립의지를 지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Bögels과 Brechman-Toussaint(2006)는 자녀의 불안감에 영향을 끼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주목했다. 이들은 심리적지지, 믿음 등을 기초로 일관성을 가지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단 불안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아동의 정서적인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동시에 부모 스스로 인식하는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식, 자녀가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양육환경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자녀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종합적인 양육태도의 기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Bögels & van Melick, 2004).

인지적 영역.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자녀의 인지적 변인에는 다양한 영역이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문제행동, 자기조절학습전략, 휴대전화 사용, 학교생활 등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의 나이 및 경험의 수준과 결부되어 자녀의 출생순서에 따라 지식의 전달이 일어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는 첫 번째 양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가 가능해진다(Bornstein, Cote, Haynes, Hahn & Park, 2010). 이 가운데 거부 및 강요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자녀의 문제행동 및 과실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설명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어머니에 비하여 아버지의 정서적 지원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육태도는 아들의 문제행동 발생 수준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Hoeve, Dubas, Eichelsheim, Van der Laan, Smeenk & Gerris, 2009). 이에 반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5세에서 10세까지 자녀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hompson, Hollis & Richards, 2003). 김동일 외(2013)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기조절학습전략을 통한 학업미루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민주적 양육태도는 휴대전화 의존 및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을 낮추는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혜, 2014; 임성범, 2017). 문선희(2013)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배형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는 특히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들에 비하여 딸의 정서 발달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엄격한 처벌과 자녀와의 분리, 냉담함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Baumrind, 1968), 명확한 진로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현숙, 조한익, 2004). 이에 반해 부모의 수용적, 방임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표현능력 및 사회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niguchi & Ura, 2001). 김영린과 이기학(2011)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는 것을 보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Ishak, Low & Lau, 2012; 서석남 외, 2012), 그 영향력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정은선, 이자영, 2013).

2. 형제/자매 관계가 청소년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형제자매 관계가 청소년 성장 및 발달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East(2009)는 개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주요한 경험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의 형제자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형제자매의 구성과 학습 성과 및 행동양식에 주목한 연구(Blake 1986; Blake 1989; Downey 1995; Goldscheider & Goldscheider 1998; Steelman, Powell, Werum & Carter, 2002), 물리적, 심리적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들의 발달에 관한 연구(Ishizaki et al., 2005; Lobato, Kao & Plante, 2005; Orsmond & Seltzer 2009; Petalas, Hastings, Nash, Lloyd & Dowey, 2009), 형제자매의 태도 및 행동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Barnes & Austin, 1995; Duncan, Duncan & Hops, 1996; Kornreich, Hearn, Rodriguez & O'Sullivan, 2003) 등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에서 청소년 성장 및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형제자매 관련 변인으로 형제자매의 출생순서, 성별, 성장시점, 애착관계 등이 다루어졌고, 이 외에도 문제 해결 방식, 교육성과, 사회 적응 등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배경요인. 형제자매 관계 자체의 배경요인들로는 출생순서, 나이, 성별, 형제자매 수, 장애유무 등이 해당하는 데 이러한 변인들이 어떻게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Yu와 Gamble(2008)은 나이 어린 동생들에 비하여 나이 많은 자녀의 경우, 드러난 문제행동에 양육환경이 보다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고, 나이가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내재적 문제의 발생에도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출생 순서에 따른 형제자매 차이의 분석은 보다 의도된 정서적 지원과 개입을 통하여 개별적인 자녀의 성장을 이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Feinberg, Solmeyer & McHale, 2012; Tudor & Lerner, 2015). 또한 첫째에 비하여 둘째의 경우 부모

로부터 더 큰 돌봄을 받고 낮은 수준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첫째의 양육으로부터 얻었던 경험을 토대로 둘째 양육 시에 시행착오를 덜 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Jensen & McHale, 2017). 또한 가족 내 주어진 자원 환경 속에서 형제자매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첫째가 부모와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반면, 둘째 이하의 경우에서 더 위험하고 반항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Sullo way, 1996).

이성형제와 함께 성장하는 것은 성별이 다른 또래집단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고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성과의 관계에서의 자신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반면(Doughty, Lam, Stanik, McHale, 2015), 동성애의 존재는 같은 성의 형제자매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선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VanderLann, Blanchard, Wood & Zucker, 2014). 형제자매 관계의 발전과 관계되어 이러한 동성 간의 애착 및 기대는 이성간의 상호작용에 비하여 더 큰 질적인 성장을 가지게 되고, 특히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Buist, Deković, Meeus & Van Aken, 2002). 부모의 성별과 형제자매의 성별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함께 겪으면서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의 관계를 특정한 심리적 관계형성 및 애착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Karwath, Relikowski and Schmitt(2014)는 형제자매의 구조와 교육적 성취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자원희석(resource dilution)가설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한정된 가정 내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하는 존재로서 성장하게 된다고 하였고, 연구자들은 형제자매 수의 증가는 첫째에 비하여 둘째 이하의 자녀들의 교육적 성취가 낮아질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 형제자매의 수와 교육적 성취간의 역의 관계가 성립함을 보였고, 특히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 그 영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gum과 Blacher(2011)는 지적/정서적 장애유무에 따른 형제자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일반적인 자녀의 경우 남매로 이루어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장애를 가진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성으로 이루어진 형제자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모의 갈등은 양측 모두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성 함양과 형제자매의 장애유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발달.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형제자매 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특히, 감정적인 측면인 질투, 경쟁심, 개방성 및 영·유아기에서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사춘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한 심리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Downey와 Condron(2004)는 형제자매간의 관계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갈등을 겪는 경쟁자(Resource Dillution), 혹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자원(Siblings as Resource)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와 형제자매 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이들의 사회성 및 대인관계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Larson & Richards, 1994; McHale & Crouter, 1996; Dunn, 2002).

Volling, McElwain and Miller(2002)는 형제자매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투와 부모 역할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형제자매간의 이러한 질투는 특히 감정절제 및 부모-자녀 관계를 살펴보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존감 강화 및 애착 형성(Rauer & Volling, 2007), 공정성에 대한 인식(Loeser, Whiteman & McHale, 2016), 감성적 이해수준(Kramer, 2014)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형제자매간의 상호작용은 종종 분노, 좌절, 행복 등 다양한 심리적 반응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관계는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빈번하게 이루어진다(Kramer & Kowal, 2005).

형제자매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부모와의 관계와 함께 전체적인 가족 환경 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공격성을 낮추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고 (Yoon, 2008; 김민서, 전수영, 조연수, 전훈정, 2018), 이에 더하여 좋은 형제자

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처방법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문제 상황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명선, 남경아, 2009). 이러한 연구들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부모 및 형제자매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장기적인 삶의 태도 및 가치관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 수준 역시 다양한 형제자매 속에서 적절하게 통제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신은숙, 조영채, 2012).

Campione-Barr, Lindell, Giron, Killoren and Greer(2015)는 형제자매간 관계의 질적 수준과 개방성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영·유아기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개방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반면, 시간이 흐르면서 형제자매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됨을 밝혔고 또한 형제자매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개방적 태도는 그 상호관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정서적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였다. Conger와 Little(2010)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춘기를 겪으면서 발생하게 되는 형제자매 관계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사춘기는 개개인이 미성년자에서 성인의 역할에 대하여 자각하게 되는 첫 단계로서 부모 및 형제자매로부터 독립심을 가지고 이성 및 친구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보고 정체성의 확립을 하게 되는 지점으로 인식한다. 사춘기에 겪게 되는 이러한 형제자매와의 관계성 약화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재정적 독립과 결정(Arnett, 2004), 이성 교제 및 직업 교육(Larson, Wilson, Brown, Furstenberg & Verma, 2002) 등 실질적인 사회 경험을 체득하면서 다시 결속력을 강화하고,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인지발달. 형제자매 관계가 청소년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학업 관련 성취도와 문제행동에 대한 폭넓은 논의들을 포함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족환경의 변인들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차적인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개별 변인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종합적인 청소년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Tillman(2008)은 특수한 형태의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언어능력 및 학업성적, 대학 진학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평균적으로 보통의 형제자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비하여 입양되었거나 재혼, 이복형제 등의 경우 학업 성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별, 출생 순서 등 기타 배경변인들을 고려한 대학 진학 가능성은 개별 가족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점은 단순한 동복형제자매에 비하여 특수한 형태의 형제자매의 경우 보다 복잡한 인지 발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Tillman 2008; Zill 1988). Knoester와 Plikuhn(2016)은 학교생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 능력의 발달에 형제자매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들은 40가구의 형제자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먼저 출생한 형제자매의 언어능력 관련 인지수준과 습관이 어린 동생들에게 영향을 끼침을 확인했고, 특히 개별적인 학교 밖 독서 습관과 함께 먼저 출생한 형제자매가 가지고 있는 태도, 가치, 정체성 및 사회적 관계가 다른 형제자매의 독립적인 읽기 습관에 영향을 끼치게 됨을 밝혔다.

부모로부터의 비교나 사회적 척도로부터의 우열 관계 설정은 형제자매 간에 서로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게 되기도 하고(Festinger, 1954), 개별적인 가정 내 경험은 어떻게 가정환경이 사회적 문제행동을 야기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Lam, Solmeyer & McHale, 2012). 또한 먼저 출생한 형제자매의 문제 행동은 더 어린 형제자매의 향후 행동양식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Low, Snyder & Shortt, 2012)하거나 사회적 고립 등을 야기하며(Bullock & Dishion, 2002; Shortt, Capaldi, Dishion, Bank & Owen, 2003), 특히 남자형제간의 잦은 갈등과 낮은 정서적 교류는 직접적인 형제자매 간 따돌림이나 학교에서의 괴롭힘으로 이어진다(Menesini, Camodeca & Nocentini, 2010). 이처럼 형제자매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들은 자기절제 및 정서적 이해의 폭을 결정하

며 음주, 약물복용 등 향후 부정적인 행동 및 상호작용을 통한 반사회적 행동에 같이 참여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Stormshak, Bullock & Falkenstein, 2009; Whiteman, Jensen & McHale, 2017).

3. 부모의 양육태도 인식과 형제자매 유형과의 관련성

부모의 양육태도 인식에 형제자매 관련 변인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형제자매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정생태계(family ecology)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형제자매가 하위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Bank, Burraston & Snyder, 2004; Garcia, Shaw, Winslow & Yaggi, 2000; McHale, Updegraff, Tucker & Crouter, 2000; Snyder, Bank & Burraston, 2005). 이를 중심으로 양육태도와 형제자매 유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기존 연구들은 형제자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배경요인을 중심으로 한 접근(Perlman, Siddiqui, Ram & Ross, 2000; 도미향, 윤지영, 2004; 박영애, 전귀연, 2009)과 상호작용 및 심리적 영향을 중심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 관계를 살펴보는 접근 방식(Hoffman, 1991; Hudson & Rapee, 2004; Criss & Shaw, 2005)들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구조적 변인으로 형제자매의 수, 성별, 나이 차이 등이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부모-자녀 간 관계, 심리적 접근 방식, 문제 상황 관리 등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적 변인. 형제자매의 구조적 변인이란 한 가족 안의 형제자매가 가족 내에서 형제자매의 구성에 따라 가지게 되는 지위로서 형제자매의 수, 나이차이, 출생순위, 성별 및 기타 특수한 구조적 형태 등을 포함한다(박영애, 전귀연, 2009).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배경요인들이 어떻게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보여준다. Bobbitt-Zeher와 Downey(2013)는 형제자매의 수가 양육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 교육적 성과와 형제자매의 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사회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였다. 추가로 형제자매의 유무를 비교하여 영·유아기부터 사춘기에 이르기까지의 성장과정을 살펴본 결과 형제자매의 유무가 사회성에 미치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고, 특히 부모양육으로부터의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회성의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녀들은 다양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의 양육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형제자매간 관계 및 가족 내 역할 설정 등에 대한 보다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Dunn, 2007).

형제자매의 나이는 특히 사춘기 등의 주요한 인식의 전환기를 거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미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 이상의 형제자매를 가지게 되는 경우 부모는 그들의 나이 차이를 고려하면서 비교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양육태도를 취하고(Feinberg, Neiderhiser, Simmens, Reiss & Hetherington, 2000), 때로는 그 정도에서도 부모 간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Furman & Lanthier, 2002). 또한 형제자매간의 갈등상황에 직면한 부모는 연령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의 강요나 억압, 반대 등의 해결전략을 수행하는 등 가족 내 비대칭적인 힘의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양육을 시도한다(Recchia, Ross & Vickar, 2010). 그리고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수준이 높거나(Van Volkom, Dirmeitis & Cappitelli, 2019) 위험한 행동에 대한 부모의 관리감독 수준이 높아지는 등(Averett, Argys & Rees, 2011) 출생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제자매의 구조적 변인들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Bank, Burraston and Snyder(2004)는 형제자매의 성별에

따라 반사회적 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양육태도 수립전략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였고, 형제, 자매, 남매 등 성에 따른 형제자매의 구조적 차이와 연계된 양육태도도 사회적 고립과 자기절제 등의 수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Boisvert, Vaske, Taylor & Wright, 2012). 그리고 형제자매의 문제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가족 내 양육환경의 인종별 차이가 존재하거나, 입양, 이복형제 및 쌍둥이와 같은 특수한 구조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형제자매의 갈등관계 및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인 부모의 양육전략과 관련된 폭넓은 논의도 존재한다(Deater-Deckard & Dunn, 2002; Neiderhiser, Reiss & Hetherington, 2007; Buist et al., 2014).

상호작용 및 심리적 영향. 형제자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부모-자녀 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심리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로를 최초의 관찰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행동이나 태도를 동조하거나 자신의 추후 행동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는 등 부모의 양육전략 수립을 위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형제자매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태도와 스트레스 등을 대처하는 요령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해석하는 방법 및 가치판단 등의 기준을 반영한다(Aghi & Bhatia, 2014). Barrett, Fox and Farrell(2005)은 심리적 불안정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의 경우에 그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아지고, 그 상호작용의 수준이 보통의 가정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통제 수준의 증가는 자녀들이 처한 심리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이는 형제자매간의 상호작용은 부모의 개인적 성향으로부터 발생하는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Meunier et al., 2011) 및 정서적 발달문제를 가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Hudson & Rapee, 2005) 등을 통하여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

Richmond, Stocker and Rienks(2005)는 8-16세의 형제자매에 대한 장기적인 종단연구를 수행하여 형제자매 관계의 질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가 어떻게 우울증 등 심리적 장애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특히 형제자매 관계에 따른 부모의 서로 다른 양육태도가 동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보였고, 특히 그러한 개별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자녀의 적응이 앞으로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밝혔다.

○ — 제3장 연구방법

- 1. 분석 자료
- 2. 측정 변인
- 3.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KCYPS 2018 중1 코호트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2차년도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청소년의 형제자매까지 조사에 포함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원패널의 청소년과 그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이다. 개인 수준의 자료는 원패널 2,438명(70.1%)과 형제자매 1,038명(29.9%)을 포함한 총 3,476명, 2,427가구의 자료이다. 이 중 외동이거나(358명), 형제자매의 응답이 없는 경우(1,117명), 형제자매의 응답이 있지만 형제자매의 나이가 7세 이하(22명)인 케이스를 삭제하였다. 또한 연구변인에 결측 값이 있는 청소년(8명), 부모(107가구) 및 해당 부모에 속한 청소년(226명)을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1,745명, 845가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측정 변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종속변인인 양육태도는 부모의 파스함, 거부, 자율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으로 측정하였다.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청소년과 부모

3) 제Ⅲ 장은 김성은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수준에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였다. 이 중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6개의 하위요인, 24개 문항은 <표 III-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1 부모 양육태도 조사 문항

하위변인	조사 문항
따스함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거부	5)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6)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7)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8)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9)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자율지지	10)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11)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12)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강요	13)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14)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15)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16)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 라고 하신다
구조제공	17)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18)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19)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20)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비일관성	21)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22)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23)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24)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1) 종속변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님의 본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소년들에게 질문한 조사로 측정하였다.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은 긍정적 양육태도를, 거부, 강요, 비일관성은 부정적 양육태도를 나타낸다. 따스함은 사랑과 애정,

돌봄 등의 표현이고(Skinner, Johnson & Snyder, 2005), 자율지지는 자녀의 시각과 관점을 수용하고, 자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며, 자녀의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의 특성을 의미한다(Grolnick, Deci, & Ryan, 1997). 구조제공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규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사회적 기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등 근거를 제공하는 일련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소현, 김아영, 2012).

거부는 싫어하는 감정, 혐오감, 적대감 등의 표현이나 가혹하거나 짜증스러운 부모의 반응 등을 포함하며, 강요는 과잉통제, 아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재적인 양육방식을 의미하고, 비밀관성은 자녀의 행동에 있어 그 방법과 결과 등 전 과정에 대한 일관성 없고 임의적인 간섭을 의미한다(Skinner, Johnson & Snyder, 2005).

그러므로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은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 강요, 비밀관성은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스함, 거부, 자율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등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점수는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4문항의 합계 점수이다.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별 기술통계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 -2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별 기술통계와 신뢰도 (N=1,745명)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Cronbach'α
따스함	12.85	2.28	-0.20	-0.23	0.881
거부	7.45	2.53	0.45	-0.21	0.806
자율지지	12.61	2.36	-0.40	0.34	0.867
강요	8.63	2.45	0.08	-0.32	0.751
구조제공	11.82	2.08	-0.16	0.76	0.757
비밀관성	8.18	2.44	0.13	-0.24	0.800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파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의 평균점수는 약 12점으로 분석되어 학생들이 느끼는 양육태도가 해당 문항에 대체로 동의하는 수준인 ‘그렇다’ 또는 그 이상으로 응답했음을 보여준다. 그 중 파스함의 평균이 12.85(sd=2.28)로 가장 높았으며, 구조제공의 평균은 11.82(sd=2.08)으로 가장 낮았다. 세 하위변인의 왜도는 모두 음수로 나타나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였다. 첨도는 파스함은 음수를 보여 정규분포에 비해 다소 평평한 분포를 자율지지와 구조제공은 양수로 비교적 뾰족한 분포를 보였다.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의 최소값은 4, 최대값은 16이었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거부, 강요, 비밀관성)의 평균은 약 8점이고, 이는 평균적인 응답이 ‘그렇지 않음’과 ‘그렇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 양육태도 중 거부의 평균이 7.45(sd=2.53)로 가장 낮았으며, 강요의 평균이 8.63(sd=2.45)로 가장 높았다. 세 하위변인의 왜도는 모두 양수로 나타나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였다. 첨도는 모두 음수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평평한 분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6개의 하위변수는 $|\text{왜도}| < 3$, $|\text{첨도}| < 10$ 에 포함되어 대체로 정규분포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Kline, 2011).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의 최소값은 4, 최대값은 16이었다.

Cronbach's α 계수를 통한 신뢰도 추정 결과 파스함(.881), 거부(.806), 자율지지(.867), 비밀관성(.800)은 0.8이상, 강요(.751)와 구조제공(.757)은 0.7 이상의 값을 보여 대체로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구인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파스함($SRMR=.014$, $CFI=.992$), 거부($SRMR=.030$, $CFI=.981$), 자율지지($SRMR=.022$, $CFI=.984$), 강요($SRMR=.066$, $CFI=.885$), 구조제공($SRMR=.023$, $CFI=.987$), 비밀관성($SRMR=.040$, $CFI=.957$) 중 강요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개인수준변인

개인수준변인은 청소년특성(나이, 성별, 아침식사), 형제자매특성(출생순서), 부모와 대화시간(주중, 주말), 부모의 만족(학교성적, 학교생활)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청소년특성, 형제자매특성, 부모와 대화시간은 청소년 본인의 응답이며, 부모의 만족은 자녀의 학교생활 전반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모의 응답 결과이다. 개인수준변인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변수 값은 <표 Ⅲ-3>과 같다.

표 Ⅲ-3 개인수준변인 설명 및 변수 값

변인		내용	값
청소년 특성	나이	학생 만 나이	2019-(기입 생년)
	성별	학생 성별	0 = 여자, 1 = 남자
	아침식사	지난 일주일 간 아침식사 한 날	직접 기입(0~7일)
형제 자매 특성	출생순서	전체 형제자매 중 본인 순서	직접 기입
부모와 대화 시간	주중	부모님(양육자)과 대화시간	0 = 전혀 안 함 1 = 30분 미만 2 = 30분~1시간 미만 3 = 1시간~2시간 미만 4 = 2시간~3시간 미만 5 = 3시간~4시간 미만 6 = 4시간 이상
	주말		
부모의 만족	학교성적	지난학기(2019-1학기) 성적 만족도	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 만족
	학교생활	지난학기(2019-1학기) 학교생활 만족도	

청소년의 나이는 2019에서 기입한 생년을 빼서 활용하였으며, 성별은 여자=0, 남자=1로 리코딩 하였다. 부모와 대화시간은 주중 대화시간과 주말 대화시간을 구분하였고, 각 변인을 7개의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만족은 청소년의 학교 성적에 대한 만족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5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개인수준변인의 기술통계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개인수준변인 기술통계⁴⁾

(N=1,745명)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 특성	나이	8	19	13.59	2.13
	성별	0	1	0.52	0.50
	아침식사	0	7	4.87	2.22
형제자매특성	출생순서	1	5	1.68	0.68
부모와 대화 시간	주중	0	6	2.79	1.30
	주말	0	6	3.51	1.46
부모의 만족	학교성적	1	5	3.39	0.91
	학교생활	1	5	3.74	0.86

분석에 포함된 청소년은 8세~19세이며, 52%가 남학생이다. 아침식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4.87번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인 청소년부터 다섯째인 청소년까지 존재하였고, 첫째는 752명(43.1%), 둘째는 825명(47.3%), 셋째는 150명(8.6%), 넷째는 16명(0.9%), 다섯째는 2명(0.1%)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대화시간 응답 평균은 주중 2.79점, 주말 3.51점으로 주말에 대화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부모의 만족도는 학교성적(3.39)에 비해 학교생활(3.74)에 대한 만족이 높았다.

4) 코딩 변경한 변수는 변경된 코딩값으로 산출한 기술통계임(<표 III-7>참조).

3) 가구수준변인

가구수준변인은 배경(월 소득, 부취업, 모취업, 부학력, 모학력, 부나이, 모나이), 부모특성(행복감), 형제자매특성(자녀 수)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가구수준의 모든 변인은 보호자의 응답 결과이며, 구체적 내용과 변수 값은 <표 III-5>와 같다.

표 III-5 가구수준변인 설명 및 변수 값

변인		내용	값
배경	월 소득	(보호자)월평균 가구소득	0 = 소득 없음 1 = 100만원 미만 2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1 = 1,000만원 이상
	부취업 모취업	지난 일주일 간 근로 여부	1 = 예, 0 = 아니오
	부학력	최종 학력	0 = 학교 안 다님 1 = 초등학교 졸업 2 = 중학교 졸업 3 = 고등학교 졸업 4 = 2~3년제 대학 졸업 5 = 4년제 대학 졸업 6 = 대학원 졸업(석사·박사)
	모학력		
	부나이 모나이	만 나이	2019-(기입생년)
부모 특성	행복감	전반적 행복감	1 =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2 = 불행한 사람이다 3 = 행복한 사람이다 4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형제자매 특성	자녀 수	부모의 자녀 수	직접 기입

배경 변인 중 월 소득은 12개 수준으로 측정하였고, 부모의 취업은 지난 일주일 간 근로 여부를 나타낸다. 학력은 7개의 수준으로 측정하였고, 부모의 나이는 청소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가구수준변인의 취업 여부와 학력, 나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부모 특성인 행복감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구수준변인의 기술통계는 <표 III-6>과 같다.

표 III-6 가구수준변인 기술통계⁵⁾

(N=845명)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배경	월 소득	1	11	5.70	1.91
	부취업	0	1	0.93	0.26
	모취업	0	1	0.71	0.45
	부학력	0	6	4.20	1.05
	모학력	0	6	4.04	0.97
	부나이	36	62	46.25	3.64
	모나이	30	56	43.57	3.27
부모특성	행복감	1	4	3.04	0.40
형제자매 특성	자녀수	2	7	2.35	0.59

월 소득은 평균적으로 약 500만원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93%, 어머니의 71%가 근로 중이다. 평균적인 학력은 아버지가 높았는데, 아버지는 4년제 대학 졸업의 학력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어머니는 2-3년제 대학 졸업의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다. 나이는 아버지의 나이가 많았고, 아버지 나이 평균은 46.25세, 어머니 나이의 평균은 43.57세였다. 부모가 느끼는 행복감의 평균은 3.04로 평균적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수는 2명~7명이었고, 2명의 자녀가 있는 보호자는 589명(69.7%), 3명의 자녀는 227명(26.9%), 4명의 자녀는 24명(2.8%), 5명, 6명, 7명은 각각 2명(0.2%), 2명(0.2%), 1명(0.1%)로 나타났다.

5) 코딩 변경한 변수는 변경된 코딩값으로 산출한 기술통계임(<표 III-8>참조).

3. 분석 방법

KCYPS 2018 2차년도 조사에서는 원패널 청소년에 대한 조사와 함께 패널의 보호자, 패널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원패널 청소년과 그의 형제자매는 동일 부모를 공유하고 있어 서로 독립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패널과 형제자매가 부모에 포함되는 2수준의 위계적인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비독립적인 자료의 구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층모형(2-level random effect multilevel model)을 설정하고(Hox, Moerbeek & Van de Schoot, 2010), HLM 7.0(Hierarchical Linear Modeling)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적용한 모형은 청소년(개인수준), 부모(집단수준)의 2수준으로 구성된 무선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Raudenbush & Bryk, 2002)이다. 원패널과 형제자매처럼 쌍을 이루는 자료(dyadic data)의 경우 한 집단 내 소속원이 2명인 것으로 안정적인 추정을 위하여 무선효과(Random slope)는 도입하지 않았다. 본 모형을 통하여 청소년과 부모 변인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평균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부모의 차이로 발생하는 양육태도 분산의 비율을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식(1), (2)과 같다.

[1수준: 개인수준]

$$Y_{ij} = \beta_{0j} + \beta_{1j}X_{1j} + \dots + \beta_{pj}X_{pj} + r_{ij}, \quad r_{ij} \sim N(0, \sigma^2) \quad \text{식(1)}$$

[2수준: 가구수준]

$$\beta_{0j} = \gamma_{00} + \gamma_{01}W_{01} + \dots + \gamma_{0q}W_{0q} + u_{0j}, \quad u_{0j} \sim N(0, \tau_{00}) \quad \text{식(2)}$$

$$\beta_{pj} = \gamma_{p0}$$

식(1)에서 Y_{ij} 는 종속변인으로써 부모 j 의 자녀인 개인 i 의 양육태도(따스함, 거부, 자율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측정치를 나타낸다. X_{pj} 는 개인수준변인으로 개인 특성(나이, 성별, 아침식사), 형제자매특성(출생 순서), 부모와 대화시간(주중, 주말), 부모의 만족(학교성적, 학교생활) 등을 포함한다. β_{0j} , β_{pj} 는 개인수준의 계수로 부모 j 에 속한 개인수준의 평균인 형제자매간 평균과 개인수준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r_{ij} 는 개인수준변인을 통해 설명하지 못하는 부모 j 의 형제자매별 양육태도의 무선오차를 의미한다. 무선오차의 분산인 σ^2 는 부모 내 개인 간 분산인 형제자매간 분산을 나타내는 무선효과 모수이다.

식(2) 가구수준모형은 개인수준 계수 β_{0j} , β_{pj} 를 가구수준변인을 통해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W_{0q} 는 가구수준변인으로 배경(월 소득, 부모 취업여부, 부모 학력), 부모특성(행복감), 형제자매특성(자녀 수) 등을 포함한다. γ_{00} , γ_{0q} 는 가구수준의 계수로 형제자매의 평균을 설명하기 위한 전체 평균과 가구수준변인의 영향력을 의미한다. u_{0j} 는 가구수준변인을 통해 설명하지 못하는 부모별 양육태도의 무선오차를 의미하며, τ_{00} 는 부모 간 분산을 나타내는 모수이다.

연구 변인은 분석 결과의 의미 있는 해석과 모형의 가정에 부합하기 위해 변환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나이는 모든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2019에서 생년을 뺀 값으로 변환하였고, 성별은 더미코딩(0=여자, 1=남자) 처리하였다. 부모와 대화시간, 월 소득, 부모의 학력 등 절대 영점이 정수 값을 갖도록 입력되어 있는 변인은 변수 값을 0부터 할당하도록 변환하였다. 또한 평균적인 청소년에 대한 결과 해석이 용이하도록 대부분의 독립변수는 전체 평균으로 센터링(grand-mean centering)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표 III-7 개인수준변인 자료변환방법 및 센터링 여부

변인		기존 값	자료 변환 방법	센터링
개인 특성	나이	생년 기입	2019-생년	○
	성별	1 = 남자, 2 = 여자	0 = 여자, 1 = 남자	×
	아침식사	직접 기입(0~7일)	-	○
형제자매 특성	출생순서	직접 기입	-	○
부모와 대화 시간	주중	1 = 전혀 안 함 2 = 30분 미만 3 = 30분~1시간 미만 4 = 1시간~2시간 미만 5 = 2시간~3시간 미만 6 = 3시간~4시간 미만 7 = 4시간 이상	0 = 전혀 안 함 1 = 30분 미만 2 = 30분~1시간 미만 3 = 1시간~2시간 미만 4 = 2시간~3시간 미만 5 = 3시간~4시간 미만 6 = 4시간 이상	○
	주말			
부모의 만족	학교성적	1 = 매우 불만족 2 = 불만족 3 = 보통 4 = 만족 5 = 매우 만족	-	○
	학교생활			

표 III-8 가구수준변인 자료변환방법 및 센터링 여부

변인		기존 값	자료 변환 방법	센터링
배경	월 소득	1 = 소득 없음 2 = 100만원 미만 3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2 = 1,000만원 이상	0 = 소득 없음 1 = 100만원 미만 2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1 = 1,000만원 이상	○
	부취업	1 = 예, 0 = 아니오	-	○
	모취업			
	부학력	1 = 학교 안 다님 2 = 초등학교 졸업 3 = 중학교 졸업	0 = 학교 안 다님 1 = 초등학교 졸업 2 = 중학교 졸업	○
	모학력	4 = 고등학교 졸업 5 = 2~3년제 대학 졸업 6 = 4년제 대학 졸업 7 = 대학원 졸업(석사·박사)	3 = 고등학교 졸업 4 = 2~3년제 대학 졸업 5 = 4년제 대학 졸업 6 = 대학원 졸업(석사·박사)	
	부나이	생년 기입	2019-생년	○
	모나이			
부모 특성	행복감	1 =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2 = 불행한 사람이다 3 = 행복한 사람이다 4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	○
가구 특성	자녀 수	직적 기입	-	○

변환된 연구변인의 영향력을 변인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확인하고자 투입변인을 특성별로 그룹화하여 순차적으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단계별로 투입된 변인은 <표 III-9>와 같다.

표 III-9 투입 변인에 따른 단계별 모형

모형	투입 변인	
	개인수준	가구수준
모형0	x	x
모형1	o	x
모형2	o	부 배경(월소득, 부취업, 부학력, 부나이)
모형3	o	모 배경(월소득, 모취업, 모학력, 모나이)
모형4	o	부모 배경, 부모특성(행복감), 가구특성(자녀수)

모형0은 기초모형(null model)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를 추가하지 않는 모형이다. 이 모형을 통해 자료에 존재하는 수준별 분산을 산출하여 개인(청소년)수준과 가구수준의 분산 비율을 통해 HLM모형의 적용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설명변수가 투입된 다른 모형과 비교를 통해 추가로 투입된 변인들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모형1은 기초모형에 개인수준변인을 추가한 모형이다. 해당 모형의 분석을 통해 개인수준변인으로 추가적으로 설명되는 양육태도의 분산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2, 모형3은 모형1에 각각 부, 모의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 중 부모의 양육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무엇인지 비교할 수 있다. 모형4는 모형1에 부모배경과 함께 부모의 특성(보호자의 행복도), 가구특성(자녀 수)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다양한 평가 준거를 활용하였다. 우선 동일한 집단에 속해있는 관찰치 간의 상관을 의미하는 집단 내 상관계수

(intraclass correlation: ICC)를 확인하였다. ICC는 관찰치의 독립성 가정이 위배되는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ICC가 크면 관찰 자료가 비독립적이며 다층모형의 적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ICC를 확인하여 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하며, 양육태도의 분산 중 부모에 의한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고자 한다. ICC는 식(3)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ICC = \frac{\tau_{00}}{\tau_{00} + \sigma^2} \quad \text{식(3)}$$

또한 다층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수준 무선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가구수준의 무선효과 모수인 u_{0j} 의 유의성을 통해 부모 간 양육태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고, 다층모형 적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간 비교를 위해서 기초모형에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을 수준별(개인수준, 가구수준)로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기초모형과 기초모형에 개인수준변인을 추가한 모형1의 설명된 분산을 비교하여 개인수준변인이 부모 양육태도의 분산을 설명하는 비율을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적절성을 비교하고자 모형 적합도(model fit)를 확인하였다. 내재된 두 모형의 비교를 위해 편차통계량(deviance statistics)을 산출하였으며, 값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χ^2 검증을 활용하였다.

○ — 제4장 연구결과

- 1. 따스함
- 2. 거부
- 3. 자율지지
- 4. 강요
- 5. 구조제공
- 6. 비밀관성

1. 따스함

‘따스함’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따스함’의 절편 12.840, 개인수준 분산 3.398, 가구수준 분산 1.799로 청소년이 지각한 ‘따스함’의 분산은 청소년 개인차에 의한 분산이 가구수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분산에 대한 가구수준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집단 내 상관계수 ICC(Intra-class Correlation)가 0.346으로 전체 분산 중 약 34.6%는 가구가 다름에 의하여 유발되었으며, 가구수준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과 가구의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따스함’에 대한 영향변인을 분석하였다. ‘따스함’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따스함 기초모형 분석결과

모형		계수	ICC
고정효과	절편(표준오차)	12.840(0.064)***	
무선효과	개인수준 분산	3.398	.346
	가구수준 분산	1.799***	

*** $p < .001$

6) 제IV장은 김성은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개인수준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1을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따스함’ 인식이 높았고, 일주일간의 아침식사 횟수, 부모님과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님의 양육태도가 따스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부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1을 보면 개인수준에서는 모형1에서 유의하였던 성별, 아침식사 횟수, 주말 대화 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추가로 부모님과 주중 대화시간(+)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따스함’ 인식이 높아졌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모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2를 보면 개인수준에서는 모형1과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따스함’ 인식이 높았고, 일주일간의 아침식사 횟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님의 양육태도가 따스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만이 유의하였다.

모형3에서는 개인수준 변인 중 성별, 아침식사 횟수, 주중과 주말의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유의하였고,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 아버지 취업여부, 아버지 학력 변인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버지의 학력의 계수는 음수로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인식하는 따스함의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변인들을 보면, 청소년의 연령과 형제자매 내 출생순서, 부모의 학교성적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고, 가구수준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학력, 연령, 주 양육자의 행복감, 자녀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형제자매 수 및 출생순서 등의 형제자매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초모형에 비하여 추가로 설명된 분산의 양이 가장 많은 모형은 모형2.1과

모형3이었다. 그러나 모형2.1에 비하여 모형3에서의 deviance 개선이 없었고, 추가 투입된 변인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도 손실을 고려하여, 모형 간명성 원칙에 따라 ‘따스함’에 대한 연구모형은 모형2.1로 판단하였다.

표 IV-2 따스함 모형별 분석결과

모형		모형1		모형2.1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12.713(0.076)***		12.730(0.076)***	
개인 수준	나이	-0.021(0.030)		-0.016(0.028)	
	성별	0.251(0.097)*		0.215(0.098)*	
	아침식사	0.148(0.024)***		0.129(0.025)***	
	출생순서	0.145(0.088)		0.160(0.088)	
	주중 대화시간	0.110(0.060)		0.146(0.064)*	
	주말 대화시간	0.294(0.054)***		0.257(0.057)***	
	학교생활 만족	0.591(0.067)***		0.502(0.068)***	
	학교성적 만족	-0.089(0.062)		-0.070(0.059)	
가구 수준	월소득			0.086(0.033)**	
	부취업			1.391(0.175)***	
	부학력			-0.107(0.055)	
	부나이			-0.015(0.016)	
	모취업				
	모학력				
	모나이				
	행복감 자녀수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⁷⁾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3.139	7.6%	3.112	8.4%
가구		1.122	37.7%	1.016	43.5%

* $p < .05$, ** $p < .01$, *** $p < .001$

7)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표 IV-2 따스함 모형별 분석결과(계속)

모형		모형2.2		모형3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12.715(0.077)***		12.731(0.076)***	
개인 수준	나이	-0.020(0.029)		-0.017(0.031)	
	성별	0.245(0.098)*		0.216(0.097)*	
	아침식사	0.143(0.026)***		0.127(0.025)***	
	출생순서	0.151(0.088)		0.166(0.100)	
	주중 대화시간	0.125(0.064)		0.145(0.064)*	
	주말 대화시간	0.280(0.057)***		0.256(0.057)***	
	학교생활 만족	0.570(0.067)***		0.502(0.069)***	
	학교성적 만족	-0.088(0.058)		-0.077(0.059)	
가구 수준	월소득	0.076(0.032)*		0.081(0.033)*	
	부취업			1.485(0.195)***	
	부학력			-0.168(0.067)*	
	부나이			-0.024(0.020)	
	모취업	0.123(0.123)		-0.153(0.126)	
	모학력	-0.011(0.061)		0.101(0.072)	
	모나이	-0.001(0.018)		0.016(0.022)	
	행복감			0.096(0.121)	
	자녀수			-0.024(0.098)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⁸⁾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3.129	7.9%	3.114	8.4%
가구		1.125	37.5%	1.014	43.6%

* $p < .05$, ** $p < .01$, *** $p < .001$

8)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2. 거부

‘거부’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거부’의 절편 7.459, 개인수준 분산 4.193, 가구수준 분산 2.225로 청소년이 지각한 ‘거부’의 분산은 청소년 개인차에 의한 분산이 가구수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분산에 대한 가구수준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집단 내 상관계수 ICC는 0.347로 전체 분산 중 약 34.7%는 가구가 다름에 의하여 유발되었으며, 가구수준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과 가구의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거부’에 대한 영향변인을 분석하였다. ‘거부’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거부 기초모형 분석결과

모형		계수	ICC
고정효과	절편(표준오차)	7.459(0.071)***	-
무선효과	개인수준 분산	4.193	.347
	가구수준 분산	2.225***	

*** $p < .001$

개인수준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1을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거부’ 인식이 낮았고, 나이, 일주일간의 아침식사 횟수, 부모님과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님의 ‘거부’ 경향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부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1을 보면 개인수준에서는 나이, 아침식사 횟수, 주말 대화 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순서가 후순위일수록 거부 경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다.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거부’ 경향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고, 반면 아버지의 나이가 많을수록 ‘거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모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2를 보면 개인수준에서는 나이, 아침식사 횟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거부’에 대한 인식은 낮았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거부’ 인식이 낮았다.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거부’의 인식 수준은 낮아졌다.

모형3에서는 개인수준 변인 중 나이, 아침식사 횟수, 출생순서,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 아버지 취업 여부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나, 아버지의 나이는 높을수록 ‘거부’에 대한 인식 수준도 함께 높아졌다.

4개의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변인들을 보면, 청소년과 양육자의 주중 대화시간과, 부모의 학교성적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고, 가구수준에서는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주 양육자의 행복감, 자녀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비하여 추가로 설명된 분산의 양이 가장 많은 모형은 모형2.1과 모형3이었다. 그러나 모형2.1에 비하여 모형3에서의 deviance 개선이 없었고, 추가 투입된 변인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도 손실을 고려하여, 모형 간명성 원칙에 따라 ‘거부’에 대한 연구모형은 모형2.1로 판단하였다.

표 IV-4 거부 모형별 분석결과

모형		모형1		모형2.1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7.575(0.085)***		7.545(0.082)***	
개인 수준	나이	-0.076(0.032)*		-0.097(0.032)**	
	성별	-0.230(0.108)*		-0.170(0.106)	
	아침식사	-0.170(0.028)***		-0.141(0.028)***	
	출생순서	-0.153(0.094)		-0.213(0.092)*	
	주중 대화시간	-0.011(0.074)		-0.062(0.072)	
	주말 대화시간	-0.227(0.066)*		-0.174(0.065)**	
	학교생활 만족	-0.731(0.077)***		-0.604(0.073)***	
	학교성적 만족	0.052(0.064)		0.028(0.062)	
가구 수준	월소득			-0.127(0.034)***	
	부취업			-1.942(0.254)***	
	부학력			0.071(0.061)	
	부나이			0.042(0.017)*	
	모취업				
	모학력				
	모나이				
	행복감 자녀수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⁹⁾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4.289	-2.3%	4.225	-0.8%
가구		1.208	45.7%	0.984	55.8%

* $p < .05$, ** $p < .01$, *** $p < .001$

9)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표 IV-4 거부 모형별 분석결과(계속)

모형		모형2.2		모형3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7.569(0.084)***		7.545(0.081)***	
개인 수준	나이	-0.089(0.034)**		-0.099(0.035)**	
	성별	-0.217(0.108)*		-0.171(0.105)	
	아침식사	-0.162(0.028)***		-0.139(0.028)***	
	출생순서	-0.190(0.098)		-0.240(0.112)*	
	주중 대화시간	-0.034(0.073)		-0.060(0.072)	
	주말 대화시간	-0.204(0.066)**		-0.170(0.065)**	
	학교생활 만족	-0.694(0.076)***		-0.597(0.073)***	
	학교성적 만족	0.050(0.064)		0.036(0.062)	
가구 수준	월소득	-0.125(0.034)***		-0.120(0.035)**	
	부취업			-1.935(0.277)***	
	부학력			0.115(0.073)	
	부나이			0.048(0.019)*	
	모취업	-0.305(0.147)*		0.045(0.147)	
	모학력	0.007(0.065)		-0.075(0.074)	
	모나이	0.020(0.021)		-0.011(0.023)	
	행복감			-0.239(0.158)	
	자녀수			0.060(0.120)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¹⁰⁾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4.265	-1.7%	4.217	-0.6%
가구		1.173	47.3%	0.996	55.2%

* $p < .05$, ** $p < .01$, *** $p < .001$

10)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3. 자율지지

‘자율지지’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자율지지’의 절편 12.603, 개인수준 분산 3.740, 가구수준 분산 1.820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자율지지’의 분산은 청소년 개인차에 의한 분산이 가구수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분산에 대한 가구수준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집단 내 상관계수 ICC는 0.327로 전체 분산 중 약 32.7%는 가구가 다름에 의하여 유발되었으며, 가구수준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과 가구의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자율지지’에 대한 영향변인을 분석하였다. ‘자율지지’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자율지지 기초모형 분석결과

모형		계수	ICC
고정효과	절편(표준오차)	12.603(0.066)***	-
무선효과	개인수준 분산	3.740	.327
	가구수준 분산	1.820***	

*** $p < .001$

개인수준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1을 보면, 일주일간의 아침식사 횟수, 부모님과과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님께 자신의 자율성을 지지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부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1을 보면 개인수준에서는 아침식사 횟수, 주말 대화 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자율지지’ 경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반면 아버지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율지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모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2를 보면 개인수준에서는 아침식사 횟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율지지’에 대한 인식은 높았고,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자율지지’의 인식 수준도 높아졌다. 나머지 가구수준 변인인 어머니 취업여부, 어머니 학력, 어머니 나이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3에서는 개인수준 변인 중 아침식사 횟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자율지지’ 인식을 강화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 아버지 취업 여부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나, 아버지의 나이는 많을수록 ‘자율지지’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아졌다.

4개의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변인들을 보면, 성별과 나이, 출생순서, 청소년과 양육자의 주중 대화시간과, 부모의 학교성적 만족도는 유의하지 않았고, 가구수준에서는 아버지 학력과 모계변인 전부 그리고 주 양육자의 행복감, 자녀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비하여 추가로 설명된 분산의 양이 가장 많은 모형은 모형2.1과 모형3이었다. 그러나 모형2.1에 비하여 모형3에서의 deviance 개선이 없었고, 추가 투입된 변인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도 손실을 고려하여, 모형 간명성 원칙에 따라 ‘자율지지’에 대한 연구모형은 모형2.1로 판단하였다.

표 IV-6 자율지지 모형별 분석결과

모형		모형1		모형2.1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12.590(0.082)***		12.611(0.079)***	
개인 수준	나이	-0.005(0.032)		0.014(0.032)	
	성별	0.030(0.108)		-0.012(0.106)	
	아침식사	0.132(0.025)***		0.112(0.025)***	
	출생순서	0.094(0.091)		0.150(0.091)	
	주중 대화시간	0.052(0.069)		0.087(0.067)	
	주말 대화시간	0.310(0.057)***		0.269(0.057)***	
	학교생활 만족	0.612(0.081)***		0.517(0.078)***	
	학교성적 만족	-0.049(0.070)		-0.033(0.068)	
가구 수준	월소득			0.090(0.032)**	
	부취업			1.490(0.189)***	
	부학력			-0.079(0.056)	
	부나이			-0.042(0.017)*	
	모취업				
	모학력				
	모나이				
	행복감 자녀수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¹¹⁾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3.581	4.3%	3.538	5.4%
가구		1.124	38.3%	0.999	45.1%

* $p < .05$, ** $p < .01$, *** $p < .001$

11)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표 IV-6 자율지지 모형별 분석결과(계속)

모형		모형2.2		모형3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12.594(0.081)***		12.609(0.079)***	
개인 수준	나이	0.012(0.033)		0.014(0.034)	
	성별	0.022(0.107)		-0.009(0.106)	
	아침식사	0.127(0.026)***		0.110(0.025)***	
	출생순서	0.141(0.092)		0.152(0.104)	
	주중 대화시간	0.062(0.069)		0.083(0.067)	
	주말 대화시간	0.296(0.058)***		0.269(0.057)***	
	학교생활 만족	0.592(0.080)***		0.515(0.078)***	
	학교성적 만족	-0.050(0.069)		-0.040(0.068)	
가구 수준	월소득	0.085(0.032)**		0.085(0.032)**	
	부취업			1.576(0.209)***	
	부학력			-0.134(0.068)*	
	부나이			-0.042(0.021)	
	모취업	0.127(0.131)		-0.161(0.135)	
	모학력	0.005(0.062)		0.097(0.073)	
	모나이	-0.031(0.019)		-0.002(0.023)	
	행복감			0.142(0.138)	
	자녀수			0.009(0.106)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¹²⁾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3.564	4.7%	3.539	5.4%
가구		1.121	38.4%	1.000	45.0%

* $p < .05$, ** $p < .01$, *** $p < .001$

12)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4. 강요

‘강요’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강요’의 절편 8.627, 개인수준 분산 4.595, 가구수준 분산 1.388로 청소년이 지각한 ‘강요’의 분산은 청소년 개인차에 의한 분산이 가구수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분산에 대한 가구수준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집단 내 상관계수 ICC는 0.232로 전체 분산 중 약 23.2%는 가구가 다름에 의하여 유발되었으며, 가구수준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과 가구의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강요’에 대한 영향변인을 분석하였다. ‘강요’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강요 기초모형 분석결과

모형		계수	ICC
고정효과	절편(표준오차)	8.627(0.065)***	-
무선효과	개인수준 분산	4.595	.232
	가구수준 분산	1.388***	

*** $p < .001$

개인수준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1을 보면, 청소년의 나이, 부모님과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 부모의 학교성적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님의 ‘강요’ 경향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부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1을 보면 개인수준에서는 나이, 부모님과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 부모의 학교성적 만족도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가구수준 변인이 전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강요’ 경향에 대한 인식은 낮아졌고, 반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

록 ‘강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모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2를 보면 개인수준에서는 나이, 부모님과과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업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강요’에 대한 인식은 낮았고, 가구수준에서는 유의한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개인수준 변인 중 나이, 부모님과과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업성적 만족도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가구수준에서는 아버지 취업 여부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였으나, 아버지의 학력과 나이는 높을수록 ‘강요’에 대한 인식 수준도 함께 높아졌다.

4개의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변인들을 보면, 청소년의 성별과 아침식사 횟수, 출생순서, 부모님과과의 주중 대화시간은 유의하지 않았고, 가구수준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학력, 연령 그리고 주 양육자의 행복감, 자녀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비하여 추가로 설명된 분산의 양이 가장 많은 모형은 모형2.1과 모형3이었다. 그러나 모형2.1에 비하여 모형3에서의 deviance 개선이 없었고, 추가 투입된 변인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도 손실을 고려하여, 모형 간명성 원칙에 따라 ‘강요’에 대한 연구모형은 모형2.1로 판단하였다.

표 IV-8 강요 모형별 분석결과

모형		모형1		모형2.1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8.600(0.085)***		8.583(0.083)***	
개인 수준	나이	-0.092(0.035)**		-0.114(0.036)**	
	성별	0.050(0.113)		0.086(0.112)	
	아침식사	-0.041(0.027)		-0.032(0.027)	
	출생순서	-0.066(0.100)		-0.128(0.103)	
	주중 대화시간	-0.038(0.075)		-0.058(0.075)	
	주말 대화시간	-0.212(0.065)**		-0.184(0.065)**	
	학교생활 만족	-0.293(0.084)**		-0.224(0.083)**	
	학교성적 만족	-0.257(0.077)**		-0.275(0.076)***	
가구 수준	월소득			-0.068(0.035)*	
	부취업			-1.017(0.237)***	
	부학력			0.166(0.063)**	
	부나이			0.051(0.019)**	
	모취업				
	모학력				
	모나이				
	행복감 자녀수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¹³⁾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4.568	0.6%	4.545	1.1%
가구		1.037	25.3%	0.951	31.5%

* $p < .05$, ** $p < .01$, *** $p < .001$

13)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표 IV-8 강요 모형별 분석결과(계속)

모형		모형2.2		모형3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8.597(0.085)***		8.582(0.082)***	
개인 수준	나이	-0.104(0.037)**		-0.112(0.039)**	
	성별	0.057(0.113)		0.085(0.112)	
	아침식사	-0.041(0.027)		-0.031(0.027)	
	출생순서	-0.097(0.103)		-0.127(0.119)	
	주중 대화시간	-0.044(0.076)		-0.058(0.075)	
	주말 대화시간	-0.203(0.066)**		-0.183(0.065)**	
	학교생활 만족	-0.276(0.084)**		-0.223(0.083)**	
	학교성적 만족	-0.261(0.077)**		-0.271(0.076)***	
가구 수준	월소득	-0.050(0.035)		-0.063(0.035)	
	부취업			-1.036(0.263)***	
	부학력			0.209(0.073)**	
	부나이			0.059(0.022)**	
	모취업	-0.165(0.141)		0.024(0.148)	
	모학력	0.058(0.067)		-0.075(0.078)	
	모나이	0.025(0.020)		-0.014(0.024)	
	행복감			-0.056(0.153)	
				0.008(0.115)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¹⁴⁾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4.563	0.7%	4.543	1.1%
가구		1.037	25.3%	0.966	30.4%

* $p < .05$, ** $p < .01$, *** $p < .001$

14)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5. 구조제공

‘구조제공’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구조제공’의 절편 11.819, 개인수준 분산 3.445, 가구수준 분산 0.891로 청소년이 지각한 ‘구조제공’의 분산은 청소년 개인차에 의한 분산이 가구수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분산에 대한 가구수준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집단 내 상관계수 ICC(Intra-class Correlation)가 0.205로 전체 분산 중 약 20.5%는 가구가 다름에 의하여 유발되었으며, 가구수준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과 가구의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구조제공’에 대한 영향변인을 분석하였다. ‘구조제공’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구조제공 기초모형 분석결과

모형		계수	ICC
고정효과	절편(표준오차)	11.819(0.055)***	-
무선효과	개인수준 분산	3.445	.205
	가구수준 분산	0.891***	

*** $p < .001$

개인수준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1을 보면, 일주일 간 아침식사 횟수가 많을수록, 출생순서가 뒤 일수록(둘째 이상), 주말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청소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조제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이 높으면 ‘구조제공’을 덜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부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1을 보면 개인수준에서는 모형1에서 유의하였던 아침식사 횟수, 출생순서,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과 학교성적 만족(-)이 동일하게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구조제공’ 인식이 높아졌고, 반면 아버지 아나가 많을수록 ‘구조제공’을 덜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모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2를 보면 개인수준에서는 모형1과 같이 아침식사 횟수, 출생순서,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과 학교성적 만족(-)이 동일하게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이 높을수록 ‘구조제공’ 정도도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반면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구조제공’의 정도가 낮다고 응답하였다.

모형3에서는 개인수준 변인 중 아침식사 횟수, 출생순서,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과 학교성적 만족(-)이 유의하였고, 가구수준에서는 월소득, 아버지 취업여부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4개의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변인들을 보면,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 주중 대화시간은 유의하지 않았고, 가구수준에서는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여부, 학력, 주 양육자의 행복감, 자녀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비하여 추가로 설명된 분산의 양이 가장 많은 모형은 모형2.1과 모형3이었다. 그러나 모형2.1에 비하여 모형3에서의 deviance 개선이 없었고, 추가 투입된 변인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도 손실을 고려하여, 모형 간명성 원칙에 따라 ‘파스함’에 대한 연구모형은 모형2.1로 판단하였다.

표 IV-10 구조제공 모형별 분석결과

모형		모형1		모형2.1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11.822(0.071)***		11.840(0.070)***	
개인 수준	나이	-0.052(0.027)		-0.029(0.028)	
	성별	-0.002(0.094)		-0.038(0.094)	
	아침식사	0.108(0.023)***		0.093(0.023)***	
	출생순서	0.161(0.082)*		0.228(0.082)**	
	주중 대화시간	0.074(0.067)		0.098(0.067)	
	주말 대화시간	0.222(0.056)***		0.191(0.055)**	
	학교생활 만족	0.305(0.061)***		0.237(0.062)***	
	학교성적 만족	-0.138(0.057)*		-0.127(0.057)*	
가구 수준	월소득			0.092(0.030)**	
	부취업			0.832(0.168)***	
	부학력			-0.040(0.051)	
	부나이			-0.046(0.016)**	
	모취업				
	모학력				
	모나이				
	행복감 자녀수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¹⁵⁾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3.288	4.5%	3.272	5.0%
가구		0.644	27.7%	0.574	35.5%

* $p < .05$, ** $p < .01$, *** $p < .001$

15)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표 IV-10 구조제곱 모형별 분석결과(계속)

모형		모형2.2		모형3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11.826(0.070)***		11.840(0.069)***	
개인 수준	나이	-0.028(0.029)		-0.019(0.030)	
	성별	-0.011(0.094)		-0.036(0.093)	
	아침식사	0.102(0.023)***		0.091(0.023)***	
	출생순서	0.225(0.083)**		0.268(0.096)**	
	주중 대화시간	0.081(0.067)		0.092(0.066)	
	주말 대화시간	0.209(0.056)***		0.190(0.056)**	
	학교생활 만족	0.289(0.061)***		0.237(0.062)***	
	학교성적 만족	-0.144(0.057)*		-0.138(0.057)*	
가구 수준	월소득	0.084(0.030)**		0.086(0.030)**	
	부취업			0.883(0.193)***	
	부학력			-0.095(0.061)	
	부나이			-0.039(0.020)	
	모취업	0.056(0.112)		-0.102(0.120)	
	모학력	0.045(0.055)		0.108(0.065)	
	모나이	-0.041(0.018)*		-0.016(0.022)	
	행복감			0.148(0.113)	
				-0.048(0.098)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¹⁶⁾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3.274	5.0%	3.268	5.1%
가구		0.627	29.6%	0.577	35.2%

* $p < .05$, ** $p < .01$, *** $p < .001$

16)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6. 비밀관성

‘비밀관성’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 ‘비밀관성’의 절편 8.176, 개인수준 분산 4.303, 가구수준 분산 1.648로 청소년이 지각한 ‘비밀관성’의 분산은 청소년 개인차에 의한 분산이 가구수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분산에 대한 가구수준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집단 내 상관계수 ICC는 0.277로 전체 분산 중 약 27.7%는 가구가 다름에 의하여 유발되었으며, 가구수준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과 가구의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비밀관성’에 대한 영향변인을 분석하였다. ‘비밀관성’에 대한 기초모형 분석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비밀관성 기초모형 분석결과

모형		계수	ICC
고정효과	절편(표준오차)	8.176(0.067)***	-
무선효과	개인수준 분산	4.303	.277
	가구수준 분산	1.648***	

*** $p < .001$

개인수준 변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1을 보면, 청소년의 나이, 일주일 간 아침식사 횟수, 부모님과와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교성적 만족도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여, 이 변인들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님의 ‘비밀관성’ 경향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부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1을 보면 개인수준에서는 청소년의 나이, 일주일 간 아침식사 횟수, 부모님과와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교성적 만족도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수

준 변인의 경우 아버지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비일관성’ 경향에 대한 인식은 낮아졌고, 반면 아버지 나이가 많을수록 ‘비일관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개인수준 변인과 가구수준 변인 중 모계 변인을 투입한 모형2.2를 보면 개인수준에서는 청소년의 나이, 일주일 간 아침식사 횟수, 부모님과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교성적 만족도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에서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일수록 ‘비일관성’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는 개인수준 변인 중 청소년의 나이, 일주일 간 아침식사 횟수, 부모님과 주말 대화시간, 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교성적 만족도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에서는 아버지 취업 여부만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

4개의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변인들을 보면, 청소년의 성별과 출생순서, 부모님과 주중 대화시간은 유의하지 않았고, 가구수준에서는 다른 양육태도 하위 변인과는 이례적으로 월소득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과 연령 그리고 주 양육자의 행복감, 자녀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모형에 비하여 추가로 설명된 분산의 양이 가장 많은 모형은 모형2.1과 모형3이었다. 그러나 모형2.1에 비하여 모형3에서의 deviance 개선이 없었고, 추가 투입된 변인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도 손실을 고려하여, 모형 간명성 원칙에 따라 ‘비일관성’에 대한 연구모형은 모형2.1로 판단하였다.

표 IV-12 비일관성 모형별 분석결과

모형		모형1		모형2.1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8.214(0.082)***		8.194(0.080)***	
개인 수준	나이	-0.088(0.032)**		-0.106(0.032)**	
	성별	-0.074(0.106)		-0.032(0.105)	
	아침식사	-0.083(0.027)**		-0.068(0.027)*	
	출생순서	-0.070(0.095)		-0.121(0.094)	
	주중 대화시간	-0.042(0.073)		-0.068(0.073)	
	주말 대화시간	-0.274(0.062)***		-0.242(0.062)***	
	학교생활 만족	-0.381(0.082)***		-0.295(0.077)***	
	학교성적 만족	-0.162(0.074)*		-0.184(0.071)**	
가구 수준	월소득			-0.039(0.035)	
	부취업			-1.452(0.237)***	
	부학력			0.118(0.063)	
	부나이			0.042(0.017)*	
	모취업				
	모학력				
	모나이				
	행복감 자녀수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¹⁷⁾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4.224	1.8%	4.203	2.3%
가구		1.206	26.8%	1.079	34.5%

* $p < .05$, ** $p < .01$, *** $p < .001$

17)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표 IV-12 비일관성 모형별 분석결과(계속)

모형		모형2.2		모형3	
고정효과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절편		8.210(0.081)***		8.192(0.080)***	
개인 수준	나이	-0.102(0.034)**		-0.112(0.035)**	
	성별	-0.064(0.105)		-0.030(0.105)	
	아침식사	-0.086(0.028)**		-0.069(0.028)*	
	출생순위	-0.108(0.098)		-0.151(0.110)	
	주중 대화시간	-0.047(0.074)		-0.067(0.073)	
	주말 대화시간	-0.264(0.063)***		-0.240(0.062)***	
	학교생활 만족	-0.361(0.080)***		-0.293(0.078)***	
	학교성적 만족	-0.171(0.073)*		-0.184(0.071)*	
가구 수준	월소득	-0.041(0.034)		-0.040(0.035)	
	부취업			-1.397(0.262)***	
	부학력			0.094(0.072)	
	부나이			0.037(0.020)	
	모취업	-0.317(0.142)*		-0.064(0.150)	
	모학력	0.107(0.067)		0.041(0.076)	
	모나이	0.033(0.020)		0.009(0.024)	
	행복감			-0.039(0.155)	
	자녀수			0.058(0.117)	
무선효과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¹⁸⁾	분산성분	추가설명 분산
개인		4.224	1.8%	4.205	2.3%
가구		1.174	28.7%	1.091	33.8%

* $p < .05$, ** $p < .01$, *** $p < .001$

18) 기초모형의 수준별 분산을 기준으로 각 모형에서 투입된 변수들에 의해 설명된 분산의 비율을 의미함.

○———— 제5장 논 의

- 1. 결과 요약
- 2. 제언
- 3.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양육태도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가구를 하나의 분석 단위(unit)로 하는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여 가구 간 차이와 가구 내 유사성을 반영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초모형에서의 개인수준과 가구수준의 분산 비율, 가구수준 분산의 유의성 등을 확인하여 모형 적용이 필요한지 검토하였고, 위계선형모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최적 연구모형을 결정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결과 요약

따스함, 거부, 자율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 각각의 전체 분산 중 가구 간 분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ICC는 0.205(구조제공)에서 0.347(거부)로 나타났다. 즉, 양육태도 인식의 차이 중 20.5%~34.7%는 가구가 서로 다름에 의해 유발된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청소년 개인변인만 투입한 모형1, 청소년 개인변인과 2수준 가구 변인 중 부계변인을 투입한 모형2.1, 청소년 개인변인과 2수준 가구 변인 중 모계변인을 투입한 모형2.2, 청소년 개인변인과 2수준 가구 변인을 모두 투입한 모형3의 설명된 분산 비율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6개 종속변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모형2.1의 설명 분산

19) 제V장은 김성은 부연구위원과 황영식 공동연구원이 작성하였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1을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택하였으며, 각 종속변인별 유의한 독립변인은 <표 V-1>과 같다.

표 V-1 양육태도 영향 변인 분석 결과요약

		따스함	거부	자율지지	강요	구조제공	비일관성
개인 수준	아침식사	+	-	+		+	-
	주말대화시간	+	-	+	-	+	-
	학교생활만족		-	+	-	+	-
	나이		-		-		-
	학교성적만족				-	-	-
	출생순서		-			+	
	성별	+					
	주중대화시간	+					
가구 수준	월소득	+	-	+	-	+	
	부취업	+	-	+	-	+	-
	부나이		+	-	+	-	+
	부학력				+		

※ ‘+’는 양의 방향, ‘-’는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변인을 의미함

주요 영향변인을 보면 첫째, 가구수준에서는 부계변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취업을 한 경우는 긍정적 양육태도가 강화되었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강화되었다. 아버지의 나이는 많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가 강화되고, 적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의 강화가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강요’에 대해서만 유의하였는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는 ‘강요’의 경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변인이 투입된 다른 경쟁모형에서도 어머니 변인은 유의한 경우가 적었던 반면, 아버지 변인들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경우 본 연구에 투입된 변인이 아닌 다른 핵심

영향변인이 존재할 가능성과 어머니 간 개인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 차이가 적거나 일관된 방향이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조적으로 아버지의 나이와 취업여부, 학력 등의 특성은 양육태도에 분명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녀 양육에서의 아버지의 참여와 역할, 긍정적 양육 태도가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버지의 일과 가정의 양립 및 부성보호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요구된다.

둘째, 출생순서에 따라 양육태도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결과에 따르면 출생순서가 후순위일수록 부모님의 구조적 제공 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거부 정도는 낮다고 응답하였다. 막내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정보의 제공, 일관된 규칙의 적용, 자녀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대와 역할, 그 중요성 등 체계에 관한 설명은 늘어나는 반면, 싫어하는 감정이나 부모가 자녀로부터 방해받고 있다는 표현은 덜 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순서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첫째에 비해 둘째 이하로 갈수록 체계화된 설명이 늘고, 거부적 표현은 줄어들어 따라 자녀 양육에 있어 보다 숙련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았다. 자녀의 나이는 거부와 강요, 비일관성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만 유의한 변인이었는데, 모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강화되었다. 반면 긍정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자녀의 나이는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다. 이는 자녀가 어린 경우 부모의 지시 또는 지도 이면의 이유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해 거부나 강요받고 있다는 느낌, 부모님이 기분에 따라 나를 대한다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넷째, 아침식사 제공과 부모와의 주말 대화는 양육태도 인식에 주요 변인이다. 방향 역시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아침식사 횟수가 많고 주말 대화시간이 길수록 긍정적 양육태도는 강화되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약화되었다. 식사를 제공하고 자녀와 관심 있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인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자

심리·정서적 교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분석 결과에서도 양육태도 인식의 핵심 변인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는 횡수와 시간과 같이 질이 아닌 양적 측정변인을 투입하였음에도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양적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만족감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이고, 학교성적 만족도는 낮을수록 부정적 양육태도를 강화하였다. 부모가 평가한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과 학업성적 만족과의 상관계수는 0.47로 상관은 있으나 높은 편은 아니었다. 따라서 학교성적에 관한 만족은 시험 결과 등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학업성취 정도의 차원에서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이고, 학교생활의 만족은 교사 및 교우관계, 학교 및 학업에 대한 태도, 규칙준수, 학교생활 적응 등 보다 전반적인 차원에서 주관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자녀가 학교생활을 만족스럽게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긍정적 양육태도의 강화, 부정적 양육태도의 약화가 나타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긍정적 양육태도는 약화, 부정적 양육태도는 강화되었다.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은 불만족하는 경우 ‘강요’와 ‘비일관성’의 경향이 높아졌는데, 이는 공부에 대한 강요와 시험결과에 따라 약속이나 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양육 방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표 V-2 연구 주요결과

주요결과
1. 양육태도 인식에 부계변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며, 아버지는 자신의 특성(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양육방식을 달리하였음
2. 아침식사 제공과 부모와의 주말대화가 양육태도 인식에 가장 주요한 변인임
3.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양육태도 인식이 긍정적이었음
4. 출생순서(막내일수록 긍정적)와 자녀 연령(낮을수록 부정적)도 양육태도 인식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남

2. 제언

자녀 양육태도 인식에 있어 아버지 특성과 아침식사 횟수, 주말 대화시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등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수준에서 아버지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가정에서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 확대와 지지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1) 국가 정책 제언: 아버지를 위한 지원 강화

이 절에서는 먼저 국내·외 아버지를 위한 지원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가적 수준에서 아버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국내 정책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은 이미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어오고 있으며, 아버지의 가사와 육아 참여 시간을 늘리고 아버지들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학적인 변화, 그로인해 예측되는 문제들과 함께 이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정책으로도 중요성을 가진다. 정책은 주로 남성 대상의 양육지원과 육아,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개선, 근로시간 유연화 및 단축 등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아버지를 지원하는 주요 정책의 근거 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의 의식변화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남녀고용평등법」을 2007년에 개정한 것이다.

개정과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법 제18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3), 일·가정 양립지원 기반 조성(법 제22조의3) 등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자녀 양육 및 가족 돌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10.27.).

주요 정책과 내용은 <표 V-3>과 같다.

표 V-3 아버지를 위한 주요 정책

정책	내용	대상 성별	근거법령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 시, 남성근로자가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최초 유급 3일)을 부여 받음	남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육아휴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 휴직이 가능함	남여	동법 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이(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가능함	남여	동법 19조의 2
가족돌봄 휴가/휴직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때는 연간 10일 이내 가능하며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연간 최장 90일 가능함	남여	동법 22조의 2

2018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117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출산휴가의 2018년 활용실적은 6.7%, 육아휴직 6.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9%, 가족돌봄 휴가/휴직은 1.9%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족돌봄 휴가/휴직은 인지도가 낮아 53.6%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활용실적과 정책 인지율은 기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낮았다(강민정, 김종숙, 김난주, 이선행, 권소영, 2019). 특히, 이러한 지원 정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은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 과중과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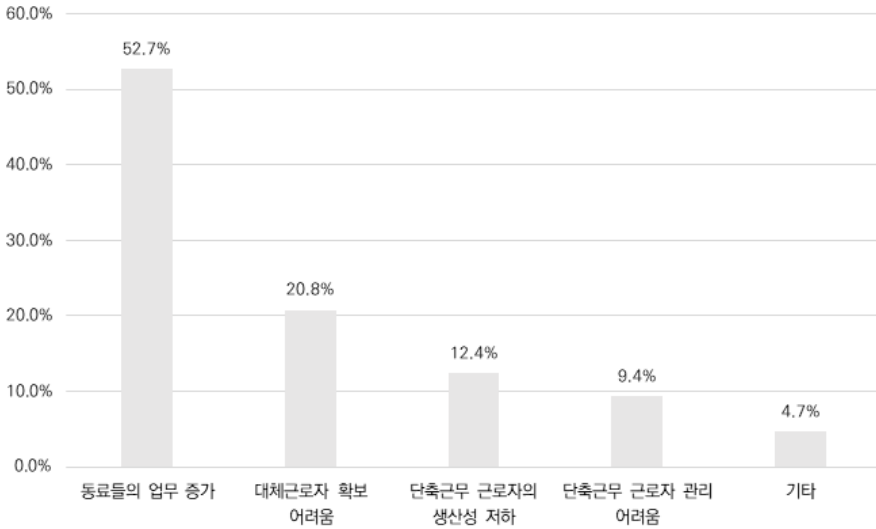


그림 V-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의 어려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어렵하게 하는 이유로 52.7%가 ‘동료들의 업무 증가’를 답하였고, ‘대체근로자 확보 어려움’ 20.8%, ‘단축근무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12.4%, ‘단축근무 근로자 관리 어려움’ 9.4% 순이었다.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에도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과중’ 32.0%, ‘대체인력 확보 곤란’ 20.6%로 나타났다(강민정 외, 2019). 즉, 제도 시행 선결조건은 주로 업무 공백 완화와 업무 공백을 대체할 인력 확보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2) 국외 정책

국내 다양한 정책들은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및 가족생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정책적인 뒷받침과 함께 실제로 남성의 양육지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유해미 외(2013)는 다음과 같이 남성 대상의 휴가·휴직제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정리한 바 있다.

표 V-4 주요국의 부모휴가제도(2011)

국가	아동 연령	기간/급여 수준	재원	비고
독일	3세	- 12+(아버지 할당제 2개월) - 평균 임금의 67% (상한제 있음)	일반 조세	12(+2)월 대신 24(+4)월로도 사용 가능
노르웨이	1)3세 2)2세 3)1-3세	- 47/57주(아버지 할당제 12주) - 47주: 100% - 57주: 80% - 실업자 정액급여(월 € 4,500)	일반 조세	1)최대 휴가 기간은 54주, 100%. 이중 9주는 어머니에게(출산휴가 포함), 6주는 아버지에게 할당되며, 나머지 39주는 부모 중 선택 2)1년 3)2년/공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
스웨덴	8세	- 480일(60일 어머니 쿼터, 60일 /아버지 쿼터 360일 공동 사용) - 80%(390일) - 상한액 있음(연 € 43,340) - 90일 정액급여 일 £20	사회 보험청	- 사용 유연성(전일제, 반일제, 1/4, 1/8) - 입양부모도 해당
벨기에	6세/장애아 8세	- 자녀당 부모 각각 3개월 - 월 € 666.30(세후)	건강 보험	- 반일제, 일주 1일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음 - 전체 6개월 중 나머지 부분은 최소 2개월 단위로 분리 사용 가능
핀란드	1)1세 미만 2)3세 3)8세	- 158일 - 75%(30일), 70%(나머지 기간) - 최저수당 있음	상병 보험	1) 다태아의 경우 추가자녀당 60일 추가, 양부모 모두 시간제 근로 가능,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해당됨

주: 노르웨이는 부모가 시간제로 일할 경우에는 부모 동시 사용 가능(39주/29주)
 벨기에의 분리 사용 예: 1개월 전일제+2개월 반일제+5개월 주1일 근무
 자료: OECD Family DB; www.ei.go.kr; www.fahcsia.gov.au; 김영옥, 김태홍, 홍승아, 배호중 (2011).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pp.43~44 재인용 재구성; 홍승아, 이만선(2012).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pp.31~33 재구성.

윤희미 외(2013)는 이와 함께 아버지 할당제에 대한 해외 사례를 제시하였다. 아버지 할당제란 육아휴직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을 아버지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부모휴가의 현실적 실효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버지에게만 적용되는 휴직을 강제화한 것이다. 1993년 노르웨이에서 최초 도입 이후 다양한 나라에서 운용 중이며, 아버지들의 이용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희식, 송다영, 김인숙, 2012). 윤희식 외(2012)는 아버지 할당제는 기간 할당제와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용된다고 밝혔다. 기간 할당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특정 기간을 부모 각각 개별 권리로서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할당된 기간은 양도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부모휴가의 일정 기간을 아버지가 사용했을 때, 유급 부모휴가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이다. 주요 국가들의 아버지 할당제 운용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 <표 V-5>와 같다.

표 V-5 아버지 할당제 운용 방식: 기간 할당제와 인센티브 방식을 중심으로

국가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권리성격	개인 권리	개인 권리	개인 권리	가족 권리	가족 권리
기간	8주	8주	8주	네거티브 방식 (90일 축소)	포지티브 방식 (1~12일 연장)
소득대체율	66%	100%	80%	37%	66%
유연성	보장	보장	보장	보장	보장
제도 특성	2007년 기존의 정액급여방식을 임금비례방식으로 전환, 8주간 아버지 할당제 도입	1993년 도입 당시 기존 부모휴가에서 4주 확대	1994년: 기존 부모휴가에서 4주를 할당하는 방식 2004년: 기존 부모휴가에서 4주를 확대하는 방식	만약 부가 부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부모휴가 기간 90일 축소	부가 부모휴가를 12일 이상 이용할 경우 1~12일 내에서 부모휴가 확대
남성 이용률	-	70~80%	70%	0%	4%

자료: 윤희식, 송다영, 김인숙 (2010).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p.134).

부성휴가제도의 경우 출산 시에 아버지에게 별도로 제공되는 휴가제도로써 남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며, 급여 수준은 70-100% 수준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해미 외, 2013). 2011년 기준으로 법정 부성휴가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23개국으로, 국가별로 기간 및 급여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홍식, 2006; 홍승아, 이인선, 2012). 이러한 부성휴가제도의 도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의 휴가 사용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남성들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해미 외, 2013).

표 V-6 주요국의 법정 부성휴가제도(2011)

국가	대상	기간	급여 수준	재원
벨기에	근로자 (자영업자 제외)	출산(임양) 30일내 10일 (3일 의무사용)	- 3일(100% 고용주 부담) - 나머지 기간 (82%, 건강보험, 출산휴가와 동일) - 상한액 있음(1일 €99.70)	고용주 건강보험
덴마크	모든 파트너십 관계 (동성애자 포함)	출산 14주내 2주	- 공공부문 근로자는 임금전액 지급	상병보험 고용주 (단체협약시)
핀란드	근로자 (자녀의 어머니와 동거 시)	3주+4주의 보너스 기간 (부모휴가를 2주 사용한 경우)	- 70%, 상한액 있음(€32,892/연소득) - 최저 급여 있음	상병보험
프랑스	근로자 자영업자	출산 4개월 내 2주 (다태아 3주)	- 100%, 상한액 있음(€2,946/월)	건강보험

① 미국

출산 휴가의 개념이 미약한 미국은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에 서명하면서 아이 출산 및 입양 시에 12주의 무급 가족 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지난 오바마 정부는 아버지들의 정서적, 경제적

책임 실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전략을 통하여 더 좋은 아버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주요한 사업들로는 공개포럼 개최, 남성관련 커뮤니티 형성, Fatherhood Buzz Barbershop Tour(거점 이발소 중심의 아버지를 위한 정보 제공 시범사업), 경제력이 없거나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를 위한 영구주택 제공 프로그램, 미 주택·도시개발부의 종합서비스 제공 행사 등을 포함한다(유해미 외, 2013). 또한 2010년에 설립된 아버지 역할 지원국립센터(NCF; The National Center for Fathering)를 통하여 실제 아버지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멘토-멘티 프로그램의 수행 및 매주 양육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무료로 이메일로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나 조부모, 삼촌 및 다른 특정 아버지들을 재학 기간 중 봉사자로 초대하여 적어도 하루 가량을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WATCH-D.O.G.S(Dads of Great Students)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보안 및 긍정적인 학습과 환경 증진을 꾀하고 있다(유해미 외, 2013). 2019년에는 트럼프 정부의 6주간 유급 가족 휴가 포함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미 의회가 연방 공무원의 12주짜리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선진국 그룹에서 연방공무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 유일한 나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한국일보, 2019.12.17).

② 유럽

가. 영국

영국은 모성휴가에 비하여 부모휴가의 개념이 최근에야 발달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부성 휴가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종전의 2주 부성휴가 외에 최대 26주까지 추가 부성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아내가 복직을 하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설계되었다(홍승아, 이인선, 2012).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성연구소(Fatherhood Institute)를 설립하여 아버지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국가적

정보 제공 서비스 및 기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예비 아버지들의 미래 양육 준비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법률, 정부, 정책 및 기타 가족지원서비스의 통합적 변화를 위한 다양한 부성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표 V-7 영국 부성연구소(Fatherhood Institute) 프로그램

아버지 참여 육아서비스 제공 방법	
대상	어린이 관련 기관 종사자, 스텝, 자원 봉사자
내용	- 일반적 육아프로그램들이 주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고 어머니들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경험이나 요구 사항들은 반영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다룸 · 육아지원에 대한 성별 차이의 중요성 · 육아 프로그램의 설계 및 컨텐츠 평가 · 아버지 참여 육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법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	
대상	다양한 상황 및 참가자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내용	- 아버지들과 함께 일하는 여성들 - 남성들을 일에 참여 시키기 - 아버지에 관한 미디어 방향성 - 배우자로서의 아버지:부부관계 지원 - 이혼한 아버지들과 함께 일하기 - 학교 대상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 기업 임직원 대상 세미나 등

자료: 영국 부성연구소 (Fatherhood Institute) 홈페이지 <http://www.fatherhoodinstitute.org>.

나. 독일

미국 및 영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는 증가하는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8주의 아버지할당제 및 인센티브 촉진을 위한 1~2달의 보너스 달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에는 스웨덴 모델을 모방한 급진적인 새로운 부모휴가제도(Parental

Allowance and Parental Leave Act)로 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휴가급여를 종전임금의 67%로 지급하고, 2개월의 “아빠의 달”을 도입하여 여성의 복직 및 남성 휴가사용을 장려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제도 이용을 필수적으로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홍승아, 이인선, 2012). 주별로 다양한 아버지 양육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베를린의 경우 2007년에 아버지센터(Väterzentrum Berlin)를 출범시켜서 아버지들을 위한 교류, 공동체 형성 등을 장려하고 있다. 이윤진, 김아름과 임준범(2016)은 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V-8 독일 아버지센터(Väterzentrum Berlin) 프로그램

사업내용	주요 프로그램
파파라덴 (Papaladen)	- 아빠카페(Papa-Cafe): 아버지들 간에 서로 양육에 대한 정보, 경험,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한 교류 - 가족카페(Familiencafe): 영·유아 가정의 서로간의 친분과 교류를 쌓고, 필요한 정보 교류 등을 주선하며, 차와 식사, 놀이 등을 함께 함 - ‘아빠-아이의 오후놀이(Papa-Kind-AbenteuerNachmittag): 아이와 아빠가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을 제공 - 체육활동(Papa-Kind Turen): 아이와 함께하는 체육활동 - ‘아버지가 되기 위한 교육(Craschkurs für werdende Väter): 예비아빠 및 생후 첫 주 아이 아빠를 위한 교육
조언 및 상담	- 이혼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혼 후 양육을 혼자 담당하는 아버지들을 위해 법적 상담과 심리 상담을 제공 및 육아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동법적 자문도 지원 - ‘이혼 후의 아버지를 위한 상담서(Ein Ratgeber für Väter nach Trennung)’를 별도로 제작 배포
여행 프로그램	- 영유아기에 아이와 아빠가 깊은 교류와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연령대별(3-6세, 6-10세, 10세 이상, 6-14세, 8세 이상 등)로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
육아강좌	- 이혼한 아버지들에 대해서 필요한 육아지식 및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해 강좌를 별도로 제공하고, 부모의 이혼을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며, 연 2회 9주에 걸쳐 진행

자료: 독일 아버지센터-베를린. <http://vaeterzentrum-berlin.de/pages/>.

다. 스웨덴

스웨덴은 기타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비해서도 업무 및 가사에 대한 보다 성공적인 육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아버지들도 충분히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양성평등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윤진 외, 2016). 또한 스웨덴 전문직노조(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Employees)에서는 매년 아버지 지수(Daddy's index)를 발표하여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index가 100인 경우 부모의 동등한 휴가사용을 뜻한다(홍승아, 최진희, 진미정, 김수진, 2016). 현재 스웨덴 정부는 일반적으로 480일간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480일간의 유급휴가를 기본으로 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제도의 의무할당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추가 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남녀의 평등한 지위를 위한 보너스’를 도입하여 양육수당에 대한 청구 외에 자녀 당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V-9 스웨덴의 육아휴직 할당기간 및 양성평등보너스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기존 육아휴직	개정된 육아휴직(2016.1.1. 이후)
의무할당기간	부모 각각 60일(총120일)	각각 90일(총180일)
양성평등보너스	일 50크로나(최대13,500크로나)	일 50크로나(최대10,500크로나)

자료: 송지원 (2015). 아버지의 휴직사용을 장려하는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p.84 〈표 1〉 보완

라. 덴마크

덴마크 역시 아버지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양육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양육수당의 최고액은 자녀의 나이에 의하여 결정되며, 우리의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모성휴가와 부성휴가 외에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부모휴가를 부모 각각 32주씩 사용가능하다(이윤진 외, 2016). 또한 대표적인 아버지의 양육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Fars Leagestue”라고 하는 아빠놀이방으로서 별도의 비용 없이 아이와 아빠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코문(Kommune, 가장 작은 단위의 지자체)마다 운영 중이다(이윤진 외, 2016). 개괄적인 아빠놀이방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10 덴마크 아빠놀이방(Fars Leagestue)의 세부 프로그램

구분	세부내용
아이와 리듬수업	- 아이와 아빠가 악기를 통해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
아빠와의 놀이그룹	- 아이와 아빠가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토요일 리듬수업	- 토요일에 개최되는 강좌로 나이에 맞게 그룹을 나누어 아빠와 함께 노래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수업
타이거 교육	- 다양한 게임 및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목요 어린이집	- 영·유아 자녀를 위한 장난감 및 아빠와의 유대감 형성
늑대의 시간에 함께하는 리듬	-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

출처: Fars Legestue. <https://kulturanstalten.kk.dk/artikel/fars-legestue>.

이상을 통해 살펴본 해외의 남성 양육지원 정책은 아버지의 양육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지원에 대한 개념이 미약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했던 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양육 지원 정책이 수립되면서 점진적으로 유급 휴가의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럽은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성 양육지원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 및 독일의 경우에는 부성 육아를 위한 연구소나 아버지센터 등 기관 중심의 연구와 실제 프로그램 수행을 주도하고 있고,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양성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기반 하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해외의 다양한 남성 육아지원 정책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남성이 육아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대체 인력 확보 및 유급 휴가 제도 시행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동시에 고려할 때 그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가정의 근로소득 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방지 및 대체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어머니’ 혼자 육아를 전담하는 것에 대한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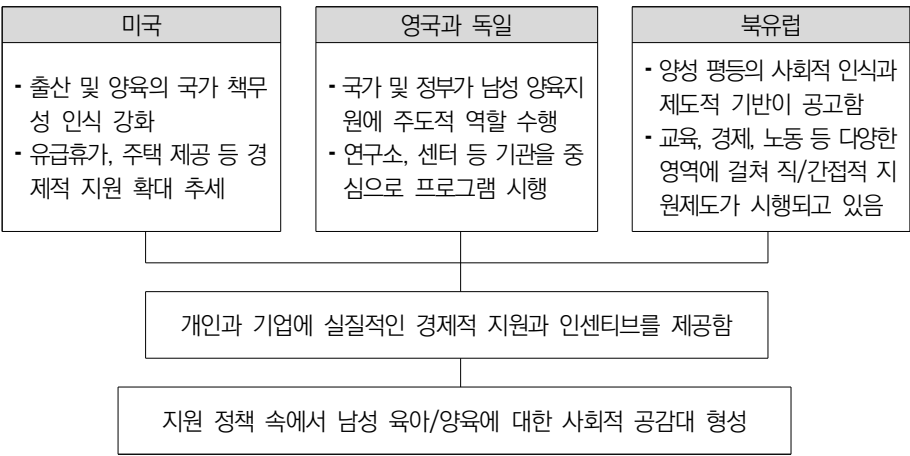


그림 V-2. 국외 정책 사례 특징 및 시사점

국외의 아버지 육아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그 내용 상에서 국내 시행 프로그램과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는 국내의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실제 고용주, 정부당국, 개별 근로자 간의 입장 차이도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간극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 것인지가 실제 국내의 아버지 양육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소결

연구 결과는 자녀의 양육태도 인식에 있어 아버지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머니 변인과 대조적으로 아버지의 경우 투입된 변인 대부분이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는 자신의 나이, 직업유무, 학력에 따라 자녀 양육 방식을 달리하고 있었으며 자녀는 이러한 차이에 따라 부모님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판단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사회적, 인구학적 특성을 양육 방식에 반영하고,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이유로 한 가지 가능한 가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이다. 2015년 발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시간은 1일 6분에 그쳐, 30여개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홍승아, 2016). 원인으로는 전통적 성역할 인식, 사회·문화적 제도와 정책 등 다양하겠으나 그 결과로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자녀와 교류할 시간을 빼앗겨 왔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 확대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도 기여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저출산 문제, 고용시장에서의 양성평등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타개에도 핵심적이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아이슬란드, 스웨덴의 출산율은 1.7명~1.8명,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77.8%, 70.7%로 나타났다(베이비타임즈, 2020.09.08). 우리나라

라 ‘19년 출산율 0.92명과 비교할 때 두 배 수준으로 높다.

최근 우리나라도 남녀 모두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여 ‘19년 전체 육아휴직자 105,165명 중, 22,297명이 남성으로 21.2%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시간 확대, 역할 강화는 사회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아버지 스스로도 요구하고 있는 권리이다. 문제는 사회적 인식, 기업문화, 제도적 개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양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직장에서의 구성원 간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변화한 사회상에 맞춘 아버지모델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시행과 확대이다.

먼저 아버지들이 각자의 양육모델을 구상하기 위하여 아버지 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교육과 상담, 특별한 상황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20년 현재 전국 218개소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다양한 아버지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 및 23개구로 확대한 ‘아이조아 아파교실’의 운영 만족도가 높다. 이 프로그램은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역할 및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 소그룹 워크숍을 진행한다. 특히 단회기 프로그램보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소그룹 워크숍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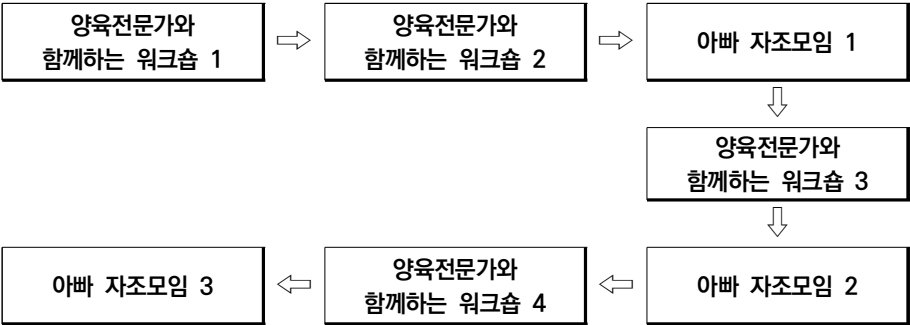


그림 V-3.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0 아파교실 운영 체계

출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seoul.childcare.go.kr>.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다회기성 교육이라는 점과 자조모임을 통하여 아버지가 스스로 양육의 주체로서 생각하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타 시도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아버지 교육이 진행 중이나 아직은 토요일 시간을 활용한 단회기성 체험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는 의미를 가지지만, 자녀 양육과 소통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것과, 양육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또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한 아버지 교육도 진행 중인데, 아버지의 역할, 영유아의 권리, 연령별 지도법, 상호작용 방법 등을 다룬다(연합뉴스, 2019.03.26). 이러한 교육은 수요자가 보다 편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가율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버지의 역할이 변화하고, 새로운 아버지모델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내실화된 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참가율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도입과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요구된다.

다음으로 아버지 지원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 재원의 변화 또는 다양화가 필요하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아버지 할당제 이용율은 70%를 상회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배우자출산후가 '18년 실적은 6.7%로 집계되었다. 특히,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용율은 낮아졌다. 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은 동료의 업무 과중과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이고, 사업체에서 대체인력 수급에 소극적인 이유는 대체인력의 생산성 및 관리 문제와 더불어 비용문제가 크다. 휴직자에게 유급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대체인력에도 일한 대가를 지급해야하며, 인력 대체에 따른 생산성 저하도 감내해야하기 때문이다.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가 전가되거나 전반적인 업무량이 증가하여 직장 내 갈등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뉴욕타임즈는 아이를 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 사이에 최근 심화된 갈등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한 직원이 SNS를 통하여 아이 돌봄 휴가를 낸 직원을 비난하면서 사내 게시판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조선

비즈, 2020.09.11). 남은 직원들은 적절한 대체인력을 수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원망과 육아 휴직자 개인을 비난하기도 하는데, ‘휴직 대신 그만 둔다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베이비뉴스, 2020.09.09). 현재처럼 남은 직원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구조에서는 아버지 지원 정책의 이용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용률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대체인력 수급에 대한 재원의 확보와 지원이 중요하다.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앞서 아버지 지원 정책으로 다룬 제도와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육아와 관련한 휴가와 휴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성보호급여의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어서 고용보험기금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쿠키뉴스, 2020.10.14). 고용보험기금이 실업 지원과 직업능력 개발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모성보호급여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버지 지원 정책의 선진사례로 보고되는 북구 유럽의 경우 이러한 종류의 지원정책 재원이 일반조세 또는 통합사회보험기금, 건강보험으로 운용되고 있다(강민정 외, 2019).

고용보험으로 모성보호급여가 지급될 경우의 문제점은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비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특히 높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강민정 외, 2019). 임금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이나 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육아 및 출산 휴가, 휴직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용률을 높이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아버지가 많으려면 제도의 재원 기반이 공고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가정 참여에 대한 모두의 인식과 일 문화 개선도 가능하다.

2) 부모 양육태도 제언: 가정의 상호작용과 지지 강화

양육태도 인식에 대한 영향변인 분석결과에서 아침식사 횟수와 부모와의 주말 대화시간, 부모님의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주요 변인이었다. 6개 하위 종속변수 대부분에 영향을 주었으며, 횟수나 시간, 만족도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는 강화하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약화하였다. 특히,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와는 대조적이었다. 학업성적 만족도의 경우 긍정적 양육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고, 만족도가 낮을수록 강요나 비밀관성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를 강화하였다.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생활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지지적 관계 개념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Gardner, Huber, Steiner, Vazquez and Savage(2008)는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 간의 관계와 가족의 기능을 보다 공고히 하는 가족 보호요인으로 ‘적응적 평가’(Adaptive Appraisal),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보상적 경험’(Compensatory Experience)이라는 개념적 틀을 제안하였다. 적응적 평가는 가족에게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와 같은 ‘관점’에 관한 개념이다. 보상적 경험은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 난 뒤의 다시 화합하는 경험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가족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며 신뢰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소연, 김정인, 2016; 재인용). Olson과 DeFrain(2003)은 가족에 대한 헌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응집성’, 가족의 위기나 갈등 등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정신적 안녕을 의미하는 ‘융통성’, ‘의사소통’을 특징으로 들기도 하였다.

국내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 연구(김현주, 이혜경, 2009)에서는 가족건강성을 ‘화목한 가정분위기’, ‘갈등 조절’, ‘활동 공유’의 세 가지 구인으로 정의한 바 있고, 건강가족의 요소를 국내 가족문화와 정서를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에서는 ‘공존적 노력’, ‘긍정적 상호작용’, ‘정신적 건강’의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유계숙, 2004). ‘공존적 노력’은 Gardner et al.(2008)의 ‘적응적 평가’ 개념을 일부 포함하는 가족 간 교류의 양과 질을 의미한다. ‘긍정적 상호작용’은 서로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 보살피고 의지하는 의사소통의 차원을 강조하는 개념이고, ‘정신적 건강’은 건강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개개인의 정신적 안녕을 의미한다.

표 V-11 건강가족 요인 및 특성

요인	건강가족의 특성
공존적 노력	- 변화에 적응하기 - 변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 - 질적인 시간을 많이 갖기 - 위기를 통해 함께 성장함 - 휴식시간 갖기 - 취미와 여가생활 갖기 - 위기극복 능력 - 쾌활함과 유머 - 가족성원들의 친지들과 교류함 -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 - 의견 차이를 인정함
긍정적 상호작용	- 정직함 - 성실함 - 신뢰 - 우애 - 가족성원들의 개성과 인격 존중 - 칭찬하기 - 서로 보살핌 - 서로의 감정을 나눔 - 타협과 양보 - 서로 의지함 - 비난하지 않기
정신적 건강	- 동정심과 자비 - 윤리적 가치관 공유 - 인간애 - 종교적 신앙

출처: 유계숙 (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국내의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강한 가족의 요소를 보면 공통적으로 함께하는 활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 지지적이고 애정 있는 관계, 긍정적 소통과 상호작용, 정신적 건강과 위기 대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부모님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소로서 아침 식사 횟수와 주말 대화시간, 부모님의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식사는 가장 빈도가 높은 가족 활동이며(연합뉴스, 2018.05.23), 대화는 직접적 교류와 소통의 시간이다. 또한 학교생활에 관하여 만족하고 있다는 지지적 태도도 청소년이 자신의 부모님이 따스하고, 자신의 자율성을 지지하며 구조제공적 태도를 가진다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10대~50대 3,3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8%가 하루 20분 미만이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대화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그 이유로 가장 많이 든 것은 ‘이야기를 해도 가족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35.1%)’였고, ‘가족과 마주칠 시간이 없어서(18.9%)’,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13.5%)’, ‘이야기 하고 싶은 주제가 너무 달라서(13.5%)’ 순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8.0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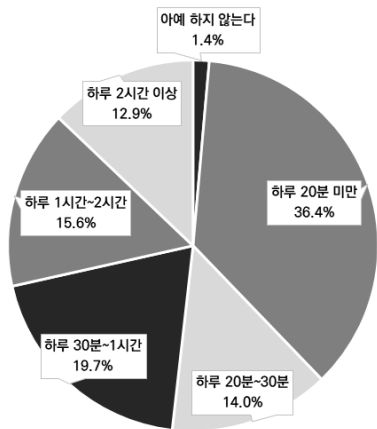


그림 V-4. 1일 가족과의 대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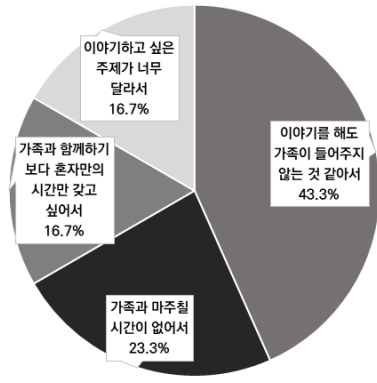


그림 V-5. 가족과 대화하지 않는 이유

가족 간의 대화시간은 최근 들어 더욱 줄어드는 경향도 나타났다. 2017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주중 부모님과 대화시간이 매일 30분 이상인 경우는 어머니와의 대화는 72.9%, 아버지와의 대화는 41.1%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각각 77.9%, 54.2%보다 낮아진 결과이며 2011년 72.0%와 45.6%에 비하여서도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화를 ‘전혀 안함’의 비율도 높아졌다(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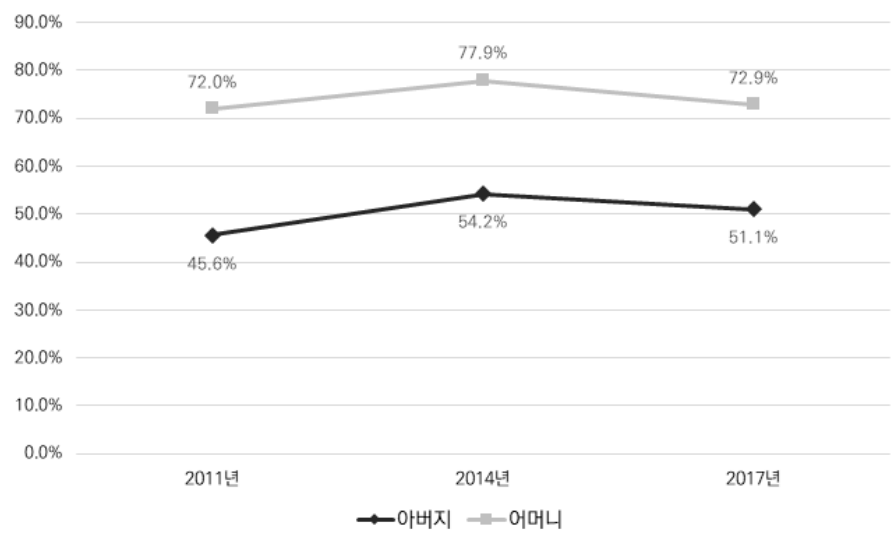


그림 V-6. 주중 부모님과 대화 시간

가족 간의 대화를 비롯하여 식사, 여가 등의 함께하는 활동으로 교류와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하고, 서로 수용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건강 가족의 중요한 요건이다. 2019년 기준 맞벌이 가정은 46.0%이고, 초·중등 자녀를 둔 40대의 맞벌이 비율은 54.2%로 절반이 넘는다(국가통계포털, 2020.06.23.). 자녀는 학업으로, 부모님은 일과 가사로 서로에게 관심과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작은 규칙이나 약속을 정하여 실천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서는 주중 대화시간보다는 주말 대화시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바쁜 주중 시간을 피하여 주말에 30분 이상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나 아침식사를 함께하는 날을 늘려보는 것, 자녀의 수행이나 생활 모습을 수용적이고 지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방법의 적용을 제안하는 것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주요 영향변인인 양육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의 시사점 및 정책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출생순서, 자녀 수 등 형제자매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부모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조사의 형제자매 부가조사에 응한 원패널과 형제자매, 보호자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가정 간 차이(집단수준 분산)를 반영한 분석으로 결과를 산출할 것이며, 결과에 따르면 양육태도 인식의 차이는 개인 간 차이와 가정 특성의 차이 양쪽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태도를 보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만드는 부모 특성, 형제자매 관련 변인, 청소년 개인 특성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표 V-12 연구 주요결과와 제언

	주요결과	제언
국가	- 양육태도 인식에 부계변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 - 아버지는 자신의 특성(연령,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양육방식을 달리하는데, 변화하는 사회 속 새로운 아버지상 부재가 원인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특히 남성 육아 및 자녀와 소통/교류하는 시간과 기회 부족함	- [교육] 아버지교육 내실화/참여율 제고 - 체계를 갖춘 다회기성 프로그램 확대 ➢ - 양육주체로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방법 도입(강의식과 자조모임 혼합) - 수요자 편의(시간, 장소)를 고려한 강좌 개설 - [정책] 지원 정책의 재원 변화/다양화 - 고용보험으로 재원이 한정되어 재정 부족/부담과 수혜자가 한정 문제 발생 - 별도기금 또는 일반조세 고려 가능
가정	- 아침식사 제공과 부모와의 주말대화가 양육태도 인식에 가장 주요한 변인임 - 자녀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양육태도 인식이 긍정적이었음 - 출생순서와 자녀 연령도 양육태도 인식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 [부모] 상호작용과 지지 기능 강화 ➢ - 건강가족의 특징으로 함께 하는 시간과, 지지적 관계, 소통, 정신건강, 위기 대처능력 등이 공통요소로 추출됨 - 식사와 대화 등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며 상호 지지 관계 구축이 필요함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한 가구 내 주 양육자와 패널 청소년 그리고 그 청소년의 형제 및 자매를 대상으로 성장·발달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구인을 설문한 조사이다.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패널 대상자의 형제 및 자매를 조사하여 데이터를 구축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청소년 성장과 발달에 가장 주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가정과 가구 구성원(양육자, 형제·자매)에 대하여 여러 상황과 생각, 신체 및 심리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다양한 주제와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도 한 가지 예로, 기존 양육태도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청소년에게 양육 태도에 관한 생각과 본인의 형제·자매 수, 출생순서 등을 질문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경우 데이터 내에 다양한 출생순서의 청소년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각기 다른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가정 내에서의 출생순서에 따른 비교는 어려웠다. 특히 양육태도의 인식은 부모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정 내 특수성이 존재하는 변인이다. 즉, 한 가정 내 형제와 자매들은 같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으므로 자녀 간 상관성이 존재할 것이며, 동시에 서로 다른 가정 간에는 차별적 특수성이 존재할 것이다. 가구 내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들은 가정이라는 상위 집단에 포함되는 객체들로 간주하여 청소년 개인 수준의 접근과 가정이라는 집단 수준의 계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형제·자매의 응답이 포함된 데이터를 통하여 가능하였고, 위계선형모형분석을 통하여 개인별 양육태도의 인식 차이에 포함된 ‘청소년 개인이 서로 다름에 따라 기인된 차이’와 ‘속한 가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발된 차이’를 분리하여 크기를 산출할 수 있었다.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도 형제·자매 간 출생순서 효과 등 서로 다른 양육태도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 차이가 집단 수준의 차이보다는 크게 나타났지만, 가정이 다름에 의해 기인한 차이도 최대 약35%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전체 분산에 포함된 개인수준의 분산과 집단수준의 분산을 분리하여 크기의 차이를 규명한데 방법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로서 양육태도 인식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아버지 양육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 간 교류/상호작용 필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13 연구 의의

연구 의의
· 새로운 데이터 구조에 적합한 연구모형(무선 절편 위계선형) 제안 · 가구 내 공통적 특수성과 가구 간 차별적 특수성을 고려한 모형을 적용하여, 가구 간 차이로 인한 분산 비율을 추정 · 패널 청소년 응답과 그 형제·자매의 응답을 동시에 활용하여 순서효과를 검증함 · 양육태도 인식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을 연구 결과로 확인, 아버지 양육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제시 · 가족 간 교류/상호작용의 필요성 확인 및 제언으로서의 실천 사항 제시

연구의 한계점도 존재하는데, 활용한 데이터는 패널 청소년을 중심으로 그의 형제·자매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형제·자매는 비확률적 편의표집한 대상이다. 따라서 가구 내 형제·자매 중 한 청소년의 연령은 고정되어 있어 여러 발달 단계에 걸친 응답을 받는 부분이나 형제·자매 응답 값의 대표성에 관한 약점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가 양육태도의 영향변인 탐색에 있어 형제·자매의 효과를 규명하는데 있었으므로 데이터에서 외동 또는 형제·자매 응답을 받지 못한 사례는 제외되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에서는 외동 청소년 또는 한 자녀 가정과의 비교와 가정 내 역동에 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민정, 김종숙, 김난주, 이선행, 권소영 (2019). 2018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세종: 고용노동부.
- 권미경, 김혜원, 안혜영, 이주원 (2005).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간호학회지**, 11(1), 132-141.
- 권재환, 이선희 (2015).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대인관계능력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모형 검증. **청소년문화포럼**, 44, 7-32.
- 김동일, 김명찬, 남지은, 강은비, 오지원, 장정현 (2013). 부모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학업미루기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매개효과 모형. **아시아교육연구**, 14(2), 29-50.
- 김민서, 전수영, 조연수, 전훈정 (2018).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1), 1-9.
- 김소현, 김아영 (201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개발과 타당화-자기결정성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심리학회지**, 26(3), 717-738.
- 김신정, 김영희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김영린, 이기학 (201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독립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2(4), 125-143.
- 김영옥, 김태홍, 홍승아, 배호중 (2011).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과천: 고용노동부.
- 김영희, 신희정, 채영문 (2007). 원가족의 정서분위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 자신감이 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2), 67-87.
- 김지혜 (2014). 부모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휴대전화의존을 매개로 청소년의 자
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9, 41-61.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
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김학령, 김정화, 정익중 (2011).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영향
력 검증: 또래영향모델과 개인특성모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6, 261-288.
- 김현옥, 권동택 (2009). 초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문화자본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2), 101-117.
- 김현주, 이해경 (2009).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청소년의 지각을 바탕으
로. **한국청소년연구**, 20(3), 33-59.
- 도미향, 윤지영 (2004). 외동이와 형제아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
아동학회지, 25(3), 75-85.
- 류효정 (2015). **부모의 양육신념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우석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인선, 김희연 (2005). 유아의 성격, 부모 만족도와 양육태도의 관계. **아동교육**
14(1). 131-144
- 문선희 (201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배형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6), 11-21.
- 문영숙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가 학대경험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7(1), 22-30.
- 박영애, 전귀연 (2009). 형제관계. **아동학회지**, 30(6), 43-59.
- 박옥환 (2018). **형제자매가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진로결정에 미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연 (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0(8), 327-333.
- 송지원 (2015). 아버지의 휴직사용을 장려하는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국제노동브리프**, 13(6), p.78-85.
- 송지현, 정소희 (2014).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7, 31-57.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은숙, 조영채 (2012). 도시지역 고등학생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과 그의 관련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2(2), 734-740.
- 유계숙 (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5-42.
- 유안진 (1982). **육아론**. 문음사.
- 유해미, 정주영, 양유진 (2013).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보고 2013-3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홍식 (2006). OECD 21 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341-370.
- 윤홍식, 송다영, 김인숙 (2010).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고양: 공동체출판사.
- 이미현 (2016). **자녀 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영, 김광웅 (2011).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통제와 친구 갈등해결. **청소년학연구**, 18(2), 193-218.

이윤진, 김아름, 임준범 (2016). 아버지 양육참여 실태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보고 2016-16).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이재연 (2004). 형제자매지위 변인에 따른 형제관계의 질과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숙, 조한익 (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89-105.

임성범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사회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1), 68-105.

정소연, 김정인 (2016). 가족보호요인(적응적 평가, 사회적 지지 및 보상적 경험) 효과 검증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돌봄 문제가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8(2), 217-248.

정은선, 이자영 (2013).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및 강인성이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204-215.

정은선, 조한익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09-227.

정은선, 하정희, 김정수 (2015). 소명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낙관성, 일희망, 부모양육태도의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1), 205-214.

정주영 (2014). 부모-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우울,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2), 237-263.

- 조결자, 이명희 (2010). 중학생의 부모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및 자아효능감의 관계.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6(2), 120-127.
- 허정철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9), 504-513.
- 현명선, 남경아 (2009).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2), 293-301.
- 홍승아 (2016).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당제 등 특단대책 필요하다. *나라경제*, 27(2), 32.
- 홍승아, 이인선 (2012).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 (수시과제)-18).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승아, 최진희, 진미정, 김수진 (2016). ‘아버지 지수’ 개발하여 남성 육아 확대필요, *KWDI 정책레시피*, 4, 1-8.
- Aghi, A., & Bhatia, H. (2014). Parenting Styles: Impact on Sibling Relationship and Rivalry.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2), 139-54.
- Alonso, P., Menchón, J. M., Mataix-Cols, D., Pifarré, J., Urretavizcaya, M., Crespo, J. M., Jiménez, S., Vallejo, G., & Vallejo, J. (2004).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relation to symptom dimensions. *Psychiatry research*, 127(3), 267-278.
- Arnett, J. J. (201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Averett, S. L., Argys, L. M., & Rees, D. I. (2011). Older siblings and adolescent risky behavior: does parenting play a rol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4(3), 957-978.
- Bandelow, B., Torrente, A. C., Wedekind, D., Broocks, A., Hajak, G., & Rüther, E. (2004). Early traumatic life events, parental rearing

- styles, family history of mental disorders, and birth risk factors in patient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European archives of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 254(6), 397-405.
- Bank, L., Burraston, B., & Snyder, J. (2004). Sibling conflict and ineffective parenting as predictors of adolescent boys' antisocial behavior and peer difficulties: Additive and interactional effec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4(1), 99-125.
- Barnes, T. P., & Austin, A. M. B. (1995). The influence of parents and siblings on the development of a personal premise system in middle childhood.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1), 73-85.
- Barrett, P. M., Fox, T., & Farrell, L. J. (2005). Parent—Child interactions with anxious children and with their siblings: an observational study. *Behaviour Change*, 22(4), 220-235.
- Baumrind, D. (1968). Parental disciplinary pattern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Youth & Society*, 9(3), 239-176.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 pt.2), 1-103.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pp. 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egum, G., & Blacher, J. (2011). The siblings relationship of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ie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2(5), 1580-1588.
- Blake, J. (1986). Number of siblings, family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educational attainment. *Social Biology*, 33(1-2), 5-21.

- Blake, J. (1989). *Family size and achievement*.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obbitt-Zeher, D., & Downey, D. B. (2013). Number of siblings and friendship nomination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34(9), 1175-1193.
- Bögels, S. M., & Brechman-Toussaint, M. L. (2006). Family issues in child anxiety: Attachment, family functioning, parental rearing and belief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7), 834-856.
- Bögels, S. M., & van Melick, M.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port, parent self-report, and partner report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and anxiety in children and par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8), 1583-1596.
- Boisvert, D., Vaske, J., Taylor, J., & Wright, J. P. (2012). The effects of differential parenting on sibling differences in self-control and delinquency among brother-sister pairs. *Criminal Justice Review*, 37(1), 5-23.
- Bornstein, M. H., Cote, L. R., Haynes, O. M., Hahn, C. S., & Park, Y. (2010). Parenting knowledge: Experiential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in European American mothers of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46(6), 1677.
- Buist, K. L., Deković, M., Meeus, W., & Van Aken, M. A. (2002). Developmental patterns in adolescent attachment to mother, father and sibl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3), 167-176.
- Buist, K. L., Paalman, C. H., Branje, S. J., Deković, M., Reitz, E., Verhoeven, M., ... & Hale III, W. W. (2014). Longitudinal effects of sibling relationship quality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

- cross-ethnic comparison.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20(2), 266.
- Bullock, B. M., & Dishion, T. J. (2002). Sibling collusion and problem behavior in early adolescence: Toward a process model for family mutua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2), 143-153.
- Campione-Barr, N., Lindell, A. K., Giron, S. E., Killoren, S. E., & Greer, K. B. (2015). Domain differentiated disclosure to mothers and siblings and associations with sibling relationship quality and youth emotion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51(9), 1278.
- Carlson, C., Uppal, S., & Prosser, E. C. (2000). Ethnic differences in processes contributing to the self-esteem of early adolescent girl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 44-67.
- Choi, O. J., Choi, J., & Kim, J. H. (2020).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negativ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positive peer relationships on social withdrawal during adolescence: an application of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5(1), 448-463.
- Conger, K. J., & Little, W. M. (2010). Sibling relationship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4(2), 87-94.
- Criss, M. M., & Shaw, D. S. (2005). Sibling relationships as contexts for delinquency training in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4), 592.
- Deater-Deckard, K., & Dunn, J. (2002). Sibling relationships and social-emotional adjustment in different family contexts. *Social Development*, 11(4), 571-590.
- Doughty, S. E., Lam, C. B., Stanik, C. E., & McHale, S. M. (2015). Links

- between sibling experiences and romantic competence from adolescence through you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11), 2054-2066.
- Downey, D. B. (1995). When bigger is not better: Family size, parental resources, and children's educational performa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6-761.
- Downey, D. B., & Condran, D. J. (2004). Playing well with others in kindergarten: The benefit of siblings at ho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333-350.
- Duncan, T. E., Duncan, S. C., & Hops, H. (1996). The role of parents and older siblings in predicting adolescent substance use: modeling development via structural equation latent growth methodolog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2), 158.
- Dunn, J. (2002). Sibling relationships.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223-237.
- Dunn, J. (2007). Siblings and socialization.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309-327.
- East, P. L. (2009).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sibling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2, 43-73.
- Feinberg, M. E., Neiderhiser, J. M., Simmens, S., Reiss, D., & Hetherington, E. M. (2000). Sibling comparison of differential parental treatment in adolescence: Gender, self-esteem, and emotionality as mediators of the parenting-adjustment association. *Child Development*, 71(6), 1611-1628.
- Feinberg, M. E., Solmeyer, A. R., & McHale, S. M. (2012). The third rail of family systems: Sibling relationships, mental and behavioral

- health, and preventive interven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5(1), 43-57.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Fishbein, M., & Ai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urman, W., & Lanthier, R. (2002). Parenting siblings. In *Handbook of Parenting Volume 1: Children and Parenting*.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Mahwah, New Jersey: London.
- Furnham, A., & Cheng, H. (2000). Perceived parental behaviour, self-esteem and happines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5(10), 463-470.
- Garcia, M. M., Shaw, D. S., Winslow, E. B., & Yaggi, K. E. (2000). Destructive sibling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conduct problems in young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36(1), 44.
- Gardner, D. L., C. H. Huber, R. Steiner, L. A. Vazquez & T. A. Savage. (200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ventory of Family Protective Factors: A brief assessment for family counseling.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6(2): 107-117.
- Goldscheider, F. K., & Goldscheider, C. (1998). The effects of childhood family structure on leaving and returning hom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45-756.
- Grolnick, W. S., Deci, E. L., & Ryan, R. M.(1997). *Internalization within the family: The self 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In J. E. Grusec

- & I. Kuczynski(Eds.),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handbook of contemporary theory(pp. 78-99). London: Wiley.
- Hoeve, M., Dubas, J. S., Eichelsheim, V. I., Van der Laan, P. H., Smeenk, W., & Gerris, J. R.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nd delinquency: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7(6), 749-775.
- Hoffman, L.W. (1991). The influence of the family environment on personality: Accounting for sibling differ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10, 187-203.
- Hox, J. J., Moerbeek, M., & Van de Schoot, R. (2010). *Multilevel analysi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Routledge.
- Hudson, J. L., & Rapee, R. M. (2004). From Anxious Temperament to Disorder: An Etiological Model. In R. G. Heimberg, C. L. Turk, & D. S. Mennin (Ed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pp. 51-74). The Guilford Press.
- Hudson, J. L., & Rapee, R. M. (2005). Parental perceptions of overprotection: Specific to anxious children or shared between siblings?. *Behaviour Change*, 22(3), 185-194.
- Ishak, Z., Low, S. F., & Lau, P. L. (2012). Parenting style as a moderator for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and Technology*, 21(4), 487-493.
- Ishizaki, Y., Ishizaki, T., Ozawa, K., Fukai, Y., Hattori, Y., Taniuchi, S., & Kobayashi, Y. (2005). Psychosocial problems among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Japan: Psychosocial association between mothers and siblings.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Physical*

- Disabilities*, 17(2), 119-132.
- Jensen, A. C., & McHale, S. M. (2017). Mothers', fathers', and siblings' perceptions of parents' differential treatment of siblings: Links with family relationship qualities. *Journal of adolescence*, 60, 119-129.
- Karwath, C., Relikowski, I., & Schmitt, M. (2014). Sibling structure and educational achievement: how do the number of siblings, birth order, and birth spacing affect children's vocabulary competences?. *Zeitschrift für Familienforschung*, 26(3), 372-396.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Knoester, M., & Plikuhn, M. (2016). Influence of siblings on out-of-school reading practices.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39(4), 469-485.
- Kornreich, J. L., Hearn, K. D., Rodriguez, G., & O'Sullivan, L. F. (2003). Sibling influence, gender roles, and the sexual socialization of urban early adolescent girls. *Journal of Sex Research*, 40(1), 101-110.
- Kotchick, B. A., & Forehand, R. (2002). Putting parenting in perspective: A discussion of the contextual factors that shape parenting practic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1(3), 255-269.
- Kramer, L. (2014). Learning emotional understanding and emotion regulation through sibling interactio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5(2), 160-184.
- Kramer, L., & Kowal, A. (2005). Sibling relationship quality from birth to adolescence: The enduring contributions of frien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 503-511.

- Lam, C. B., Solmeyer, A. R., & McHale, S. M. (2012). Sibling differences in parent-child conflict and risky behavior: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4), 523.
- Lanz, M., Scabini, E., Vermulst, A. A., & Gerris, J. R. (2001). Congruence on child rearing in families with early adolescent and middle adolescent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2), 133-139.
- Larson, R. W., Wilson, S., Brown, B. B., Furstenberg, Jr, F. F., & Verma, S. (2002). Changes in adolescents' interpersonal experiences: Are they being prepared for adult relationships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2*(1), 31-68.
- Larson, R., & Richards, M. H. (1994). *Divergent realities: The emotional lives of mothers, fathers, and adolescents*. New York: Basic Books.
- Lobato, D. J., Kao, B. T., & Plante, W. (2005). Latino sibling knowledge and adjustment to chronic disabi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4), 625.
- Loeser, M. K., Whiteman, S. D., & McHale, S. M. (2016). Siblings' perceptions of differential treatment, fairness, and jealousy and adolescent adjustment: A moderated indirect effects mode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8), 2405-2414.
- Low, S., Snyder, J., & Shortt, J. W. (2012). The drift toward problem behavior during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The contributions of youth disclosure, parenting, and older sibling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2*(1), 65-79.
- McHale, S. M., & Crouter, A. C. (1996). The family context of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In G. Brody (Ed.), *Sibling relationships: Their*

- causes and consequences* (pp. 173-195). Norwood, NJ: Ablex.
- McHale, S. M., Updegraff, K. A., Tucker, C. J., & Crouter, A. C. (2000). Step in or stay out? Parents' roles in adolescent siblings'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3), 746-760.
- Menesini, E., Camodeca, M., & Nocentini, A. (2010). Bullying among siblings: The role of personality and relational variabl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921-939.
- Meunier, J. C., Roskam, I., Stievenart, M., Van de Moortele, G., Browne, D. T., & Kumar, A. (2011). Externalizing behavior trajectories: The role of parenting, sibling relationships and child personalit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2(1), 20-33.
- Neiderhiser, J. M., Reiss, D., & Hetherington, E. M. (2007). The Nonshared Environment in Adolescent Development (NEAD) Project: A longitudinal family study of twins and sibling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Twin Research and Human Genetics*, 10(1), 74-83.
- Olson, D. H., & DeFrain, J. (2003). *Marriage and families-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 McGrawhill.
- Orsmond, G. I., & Seltzer, M. M. (2009). Adolescent siblings of individuals with an autism spectrum disorder: Testing a diathesis-stress model of sibling well-being.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9(7), 1053-1065.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erlman, M., Siddiqui, A., Ram, A., & Ross, H. S. (2000). An analysis of sources of power in children's conflict interactions. *The*

- developmental psychology of personal relationships*, 155-174.
- Petalas, M. A., Hastings, R. P., Nash, S., Lloyd, T., & Dowey, A. (2009). Emotional and behavioural adjustment in siblings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ith and without autism. *Autism*, 13(5), 471-483.
- Rakel, RE (2002). *Textbook of family practice*. W. B. Saunders Co, Philadelphia, 6th ed, 31-42.
- Raudenbush, S.W., & Bryk, A.S.(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 London: Sage.
- Rauer, A. J., & Volling, B. L. (2007). Differential parenting and sibling jealousy: Developmental correlates of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14(4), 495-511.
- Recchia, H. E., Ross, H. S., & Vickar, M. (2010). Power and conflict resolution in sibling, parent-child, and spousal negotia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5), 605.
- Richmond, M. K., Stocker, C. M., & Rienks, S. L. (2005).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sibling relationship quality, parental differential treat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4), 550.
- Shortt, J. W., Capaldi, D. M., Dishion, T. J., Bank, L., & Owen, L. D. (2003). The role of adolescent friends, romantic partners, and siblings in the emergence of the adult antisocial lifestyl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521.
- Skinner, E., Johnson, S., Snyder, T.(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 Smith, M. (2011). Measures for assessing parenting in research and

- practice.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16(3), 158-166.
- Steelman, L. C., Powell, B., Werum, R., & Carter, S. (2002). Reconsidering the effects of sibling configuration: Recent advances and challeng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1), 243-269.
- Stormshak, E. A., Bullock, B. M., & Falkenstein, C. A. (2009). Harnessing the power of sibling relationships as a tool for optimiz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09(126), 61-77.
- Sulloway FJ. (1996). *Born to rebel: Birth order, family dynamics, and creative lives*. Pantheon Books.
- Taniguchi, H., & Ura, M. (2001). The Links betwee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Children's Social Skills, and Support Giving and Support Receiving in Friendships among Children. *Japanes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1), 12-21.
- Thompson, A., Hollis, C., & Richards, D. (2003). Authoritarian parenting attitudes as a risk for conduct problem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2(2), 84-91.
- Tillman, K. H. (2008). Coresident sibling composition and the academic ability, expectations, and performance of youth. *Sociological Perspectives*, 51(4), 679-711.
- Tudor, M. E., & Lerner, M. D. (2015). Intervention and support for siblings of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8(1), 1-23.
- Van Volkom, M., Dirmeitis, D., & Cappitelli, S. (2019). An Investigation of the Connection between Parenting Styles, Birth Order, Personality, and Sibl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al*

- Science*, 7(1), 55-63.
- VanderLaan, D. P., Blanchard, R., Wood, H., & Zucker, K. J. (2014). Birth order and sibling sex ratio of children and adolescents referred to a gender identity service. *PloS one*, 9(3), 1-9.
- Volling, B. L., McElwain, N. L., & Miller, A. L. (2002). Emotion regulation in context: The jealousy complex between young siblings and its relations with child and family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73(2), 581-600.
- Whiteman, S. D., Jensen, A. C., & McHale, S. M. (2017). Sibling influences on risky behavior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Vertical socialization or bidirectional effect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2017(156), 67-85.
- Yoo, A. J. (1989). *Korea's traditional parenting method*.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Yoon, O. K. (2008). A study on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comparing relative effects of the individual, family, school, community contexts. *Correction Rev*, 38, 107-138.
- Yu, J. J., & Gamble, W. C. (2008). Familial correlates of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between young adolescent sibling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6), 655-673.
- Zill, N. (1988). Behavior, achievement, and health problems among children in stepfamilies: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of child health. In E. M. Hetherington & J. D. Arasteh (Eds.), *Impact of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stepparenting on children* (pp. 325-368).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81888&ancYd=20071221&ancNo=08781&efYd=200806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에서 2020년 10월 27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2020.06.23). 지역별고용조사: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맞벌이 가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4F03S&vw_cd=MT_ZTITLE&list_id=B19_EQ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독일 아버지센터-베를린 홈페이지. <http://vaeterzentrum-berlin.de/pages/>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베이비뉴스 (2020.09.09). ‘고백한다, 나도 육아휴직 워킹맘 동료들 원망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36>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베이비타임즈 (2020.09.08). ‘남성의 육아 휴직, 왜 중요할까?’.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36>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빠육아 전문교육(아이조아 아빠교실)’.

https://seoul.childcare.go.kr/lseoul/d2_20000/d2_34100/d2_34112.jsp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연합뉴스 (2018.05.23). ‘1050세대 10명 중 4명 “가족과 대화 하루 20분 미만”

〈알바천국〉’. <https://www.yna.co.kr/view/AKR20180523051000848?input=1195m>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연합뉴스 (2019.03.26). ‘점심시간 쏘개 육아법 배우는 아빠들... “만족도 높아”’.

<https://www.yna.co.kr/view/AKR20190325148300004?input=1195m>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영국 부성연구소 (Fatherhood Institute) 홈페이지.

<http://www.fatherhoodinstitute.org>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조선비즈 (2020.09.11). “애 키우는 게 벼슬이냐”...美 IT업계 ‘육아휴직’ 놓고 독신자들 불만 심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10/202009100316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쿠키뉴스 (2020.10.14). ‘모성보호급여 사각지대 해소해야...고용보험체계 개선 관건’.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10140301>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한국일보 (2019.12.17). 미국 연방공무원도 유급 육아 휴가 간다... 예산에 첫 반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71631042548>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Fars Legestue. <https://kulturanstalten.kk.dk/artikel/fars-legestue>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OECD Family DB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www.ei.go.kr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www.fahcsia.gov.au에서 2020년 11월 10일 인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perspectives on childrearing, come up with policy implications, identify significant results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9, and suggest the use of an analysis model that reflects the structure of said survey and features of variables concerning childrearing.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concerns 1,745 adolescents from 845 households of the second-year cohort of KCYPs 2018. Household-level variability and significance was checked using a basic model, into which influencing factors were not entered, using a random intercepts hierarchical linear model, followed by the quantitative changes in said variables by entering features related to parents and households, consecutively, into the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ather-related features (age, academic background, whether working or not, etc.)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hildrearing perspectives, while mother-related features have minimal influence. It was also found that engagement in dialogue with parents at breakfast and on weekends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of perspectives on childrearing. Parents satisfied with their children's school life adopted a positive perspective on childrearing. Birth order and children's ages are also factors that influence parents' perspectives in this regard.

In conclusion, regarding the need for the substantiation of fathers'

education and enhancement of fathers' participation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this study makes several suggestions, including: expanding and reinforcing the content of multi-session programs, adopting educational programs that promote fathers as key actors in childrearing, and providing lectures that take end-users' convenience into account. Regarding policy supporting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this study suggests the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including the creation of a separate fund or introduction of taxation beyond employment insurance. Finally,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households set aside more time for family time, including meals and dialogue, as a way of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interaction and mutual support.

The focal points of this study are the estimation of variability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households with the application of a model that takes the specificity of the study-related variables into account, demonstration of the birth-order order effect based on wide-ranging empirical materials (i.e. responses from siblings),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relevant polic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confirmed the importance of perspectives on childrearing.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 20-R02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최정원·이수정·장혜림
-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문호영
-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성유리·박윤수·김보경
-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조방안 연구 II: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이종원·남화성·정지희
- 20-R0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1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2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 김경준·김정숙·윤철경
-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송태민
-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만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효
-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승경·임세희·최은영
-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박한보·주경필
-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

-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 최인재·강경균·송민경·조윤정·김가희
- 20-R12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황형석
-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 (자체번호 20-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장희영 (자체번호 20-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현·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신동훈·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청소년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 (자체번호 2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청소년-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 (자체번호 2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임희진 (자체번호 2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생 / 배상률·이창호·이정림 (자체번호 2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생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심우민·윤지원·김광희·최원석 (자체번호 2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생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0-R17-2)

연구개발적립금

-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이정민
-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이정민·김수혜
-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수 시 과 제

-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이종원
-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김기현
-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김지연
-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이종원·박정배
-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백해정

수 탁 과 제

-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안재영·황은희
-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양미석
-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양미석
-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양미석
-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이윤소
-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선보라·이혜옥·이윤소
-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배은정·이윤소
-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선보라·이윤소
-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이혜옥·이윤소
-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이윤소
-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용역 / 김형주·김혁진·김정주
-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40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남화성
-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 20-R41-1 꿈과 친구사이: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문호영
-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백해정·이상정
-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황세영·손진희·박명선·박종원·조기영
-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좌동훈

-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최홍일
-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남화성
-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좌동훈
-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김영만·김용성
-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김병완 작가의 쿼텀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 (4.21)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7.17)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8.26)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학교 안밖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0.5)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방향 모색)(12.18)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20-S26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쏘다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20-S32	진로위기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Ⅱ: 학교 졸업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연구보고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인 쇄 2020. 12. 24.

발 행 2020. 12. 31.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전화 044)866-3014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 (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85-8 94330
979-11-5654-283-4 (세트)